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29일)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한국 비구니 모든 것 총체적 연구로 DB화

전국비구니회 · 비구니승가硏 신년계획 발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승단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한국 비구니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 조사사업이 본격화된다. 비구니 역사와 인물에 대한 조명은 물론, 디지털 비구니인물백과사전 등 비구니와 관련한 사진과 기사 기록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구축 사업도 총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 비구니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비구니 위상 제고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월 29일 신년하례에 이어 소임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사업보고에 이어 집행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지속해 나갈 부서별 주력사업을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비구니사' 편찬 등에 역점을
구술아카이브 · 인물 백과사전도
비구니역사 · 인물 DB구축 사업
"위상 제고 · 조명 핵심토대될 것"

올해 사업 계획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수경)가 주도하는 비구니 연구조사 및 발간 사업이다. 비구니승가연구소는 올해 △한국비구니사 편찬 사업 △신문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자료집 메타데이터 구축 △한국 비구니 구술 아카이브 구축 △전국비구니회의 역사 아카이브 구축 △한국 비구니와 여성 디지털 인물백과사전 발간 사업 등에 매진한다.

한국비구니사 편찬 사업은 지난해 첫발을 내딛은 사업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비구니를 중심으로 그 역사성을 조명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이를 위해 소장 수경 스님과 국장 정문 스님, 전영숙 책임연구원,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부터 스터디팀을 구성해 비구니 역사에 관한 조사에 나섰고, 현재 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의 초고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는 비구니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근거자료인 동시에 대중들이 비구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작성된 초고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작업에 나서는 한편, 조선 후기부터 20세기까지 비구니사 원고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신문기사로 본 한국근현대 비구니자료집' 의 메타데이터 구축작업은 신문기사에 등장한 비구니 관련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스크랩 형태로 진행해 온 자료가 토대가 됐다. 홈페이지도 함께 만들어 비구니에 관심 있는 이들이 간편하게 접속해 비구니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할 예정이며, 올 9월 경 관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중들이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한국 비구니 구술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세납 70세 이상 법납 40년 이상의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구술인터뷰를 통한 자료화 작업으로 주목된다. 과거에 이어 현시대를 살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그 자체로 반세기 비구니사의 주역이자 출가수행자의 지표이기에, 그 삶을 조명함으로써 비구니로서의 삶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구술 녹화를 통한 영상과 텍스트 자료를 함께 구축해, 대중과 대중매체에 다양한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비구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 비구니와 여성' 디지털 인물백과사전은 그야말로 비구니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인물 기록이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불교문화 및 대사회적으로 기여한 비구니스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스님들의 역할과 활약이 새롭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물백과사전은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 예정이다.

수경 스님은 "승가연구소가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은 그동안 분산돼 있거나 조사 · 연구가 부족해 조명되지 못했던 비구니 분야의 학문적 · 역사적 토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출발점에 서있다"며 "비구니 역사와 인물,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체계화해 대중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해당 사업들은 전국비구니회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가운데, 사업 후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속도가 다소 더디다"며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신년하례에서 올해 집행부 소임자 인사를 완료하고, 2월 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새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회칙 제개정 및 승가공동체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다뤘다. 이날 논의된 안건 등은 3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없는 무탈한 한해를"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2월 3일 입춘을 맞아 가정화합 발원문 소전의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찰 지침으로 대웅전에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은 외부 앞마당에서 기도를 올렸고, 새해를 시작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발원문을 작성했다. 주지 지현 스님과 대중 스님들은 신도들이 작성한 발원문은 모아 태우는 소전의식을 통해 저마다 발원의 원만성취와 코로나19가 없는 평안한 한해를 서원했다. 글=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국보 반가사유상 전용 전시공간 만든다

국립중앙박물관, 신년간담회서
2층 기증관 입구에 공간 조성
"루브르 모나리자 전시실처럼
國博 대표 전시공간 만들 것"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인 국보 제78호 ·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용 전시공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롭게 조성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2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1일 임명된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앞으로의 박물관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민 관장은 '사람을 다시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반가사유사상 전시공간 조성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립 △기증관 공간 개편 △어린이박물관 확대 개편 수립 등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민 관장은 가장 먼저 국보 제78 · 83호 반가사유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용전시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재로 손꼽힌다. 매년 국내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품에 선정돼 오고 있고, 세계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두 반가사유상을 함께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은 없었다. 두 반가사유상을 국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던 것은 2004년과 2015년 두 번뿐이었다.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월 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전시실을 기존 3층 불교조각실에서 2층 기증관 입구로 이동하고 오는 10월까지 약 440㎡ 규모의 전용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반가사유상을 '국립박물관 브랜드 문화재' 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 관장은 "시공을 초월하여 감동과 영감을 주는 반가사유상의 보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전시공간을 만들겠다"면서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전시실을 보러 프랑스 파리를 가듯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반가사유상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신 보존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과학센터' 를 올해 중으로 착공한다. 박물관 북쪽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9350㎡ 규모로 건립되는 '문화유산 과학센터' 는 광범위한 문화재 데이터를 조사 · 수집하고 빈발하는 문화재 진위 논란 등을 막기 위한 국가 공인 문화재 검증 센터가 될 전망이다.

민 관장은 "2024년 문화유산 과학센터가 완공되면 국립박물관 보존과학 역량이 더욱 성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부터 기증관을 점진적으로 개편해 기증자 예우를 위한 '기증자 전당' (2022년 완성)을 만들어 기증자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기획해 선보인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속박물관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속 박물관 브랜드 특성화 △지역 박물관 협력망 구축 △소장품 자료 아카이빙 △온라인 전시 등 디지털 콘텐츠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계획 중인 특별전 일정도 발표했다. 특히 한국 불교회화, 조각 등을 주도했던 승려 장인, '승장(僧匠)' 들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올해 12월 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관련 기사 10면〉 신성민 기자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쉽니다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해임취소 소송… 광주시는 임시이사 강행

〈경기도〉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정상화 향방은?

경찰 수사 '혐의없음'에도
2월 1일 임시이사 파견해
해임명령 후속조치 일환

나눔의집 법인, 1월 20일
경기도 상대로 행정 소송
결과따른 변수·혼란우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경기도 광주시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강행하면서, 추가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이사 파견은 지난해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일부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명령한데 따른 후속조치이지만, 경찰이 해당 이사들의 해임사유인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는 등 해임 명령의 타당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나눔의집 측은 1월 20일 경기도를 상대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2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는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약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으로, 여성가족부(1명)와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가 각각 추천했다.

광주시의 이번 임시이사 파견은 후원금 운용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명분이지만, 되레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임된 임시이사 8명은 지난해 광주시가 임명을 무효시킨 사외이사 3인과 경기도 해임명령 처분을 받은 이사 5인 등 8명에 대한 후속조치이지만, 이 중 이사 5인의 해임명령과 관련해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이사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 등 나눔의집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이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도출하는 등 여러 변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명령 취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이사들은 원직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경기도와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 문제가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해임' 조항에 따른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임원 해임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은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법인의 업무에 관해 시·도지사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등이다.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혹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눔의집 법인의 경우 이미 광주시·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에 나섰고, 이사 5명에 대한 혐의점 역시 경찰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해임명령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기도 등이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을 강행함으로써, 이사진을 교체 및 선임해 나눔의집 운영 주도권을 박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이사 5인의 해임명령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나눔의집이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 이사 해임명령에 이어 광주시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황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및 해임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나눔의집 문제는 애초 이사들의 개인적인 횡령 등 심각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사 해임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음에도,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나눔의집 문제는 이사진의 횡령이나 배임 문제라기보다 상당수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고 법인 차원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며 "그럼에도 '내부제보 직원'과 시설운영진 간의 갈등이 추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의식한 경기도의 후속조치가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되레 정상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원융살림 자세로 교구화합 힘쓸 것"

10교구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
원행스님, 2월 4일 임명장 수여



"원융살림의 전통을 잘 되새겨 어른 스님 잘 모시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함께 아우르고 품어낼 수 있는 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사진〉이 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교구복지와 대중화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덕관 스님은 지난 2월 15일 은해사 산중총회에서 성담 스님과의 경선을 통해 주지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덕관 스님은 특히 교구 복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스님은 "대중 스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구 승려복지 방향성을 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종단 승려복지회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복지가 가능하도록 교구 차원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대중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갈 것"이라며 "교구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게 됐다"며 "원로의원 스님도 계신 교구인 만큼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는 가운데 교구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임명장 수여식 후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으로 2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덕관 스님은 금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청하 스님을 계사로 1992년 사미계,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과 감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강화 보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불굴사 주지다. 송지희 기자



쉬페르 에디오피아 대사가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 대사의 첫 종단예방이다.

"에디오피아 평화 위한 조언자돼 달라"

주한에디오피아 대사, 2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예방서

쉬페르 시구테 월라샤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지혜로운 조언자가 돼달라"고 부탁했다. 또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되는 복지·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형제의 나라인 에디오피아와의 인연도 강화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쉬페르 에데오피아 대사는 2월 3일 신년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과 에디오피아 간 긴밀한 연대 확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 아프리카 국가의 주한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것은 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원행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에디오피아가 병력을 파견한 데 대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며 "인연이 된다면 에디오피아 방문을 포함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연등회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올해 연등회에 대사를 초청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쉬페르 대사는 "한국전쟁 당시 황제의 호위대가 파견된 이후 국민들에게 한국은 형제의 나라다"며 "한국에 와서 불교를 접한 후 불교가 평화의 종교임을 알게 됐다. 85개 민족으로 구성된 에디오피아에 꼭 필요한 덕목이 평화와 화합인 만큼, 총무원장 스님께서 에디오피아를 위한 지혜로운 어른, 조언자가 되어 에디오피아를 위해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연등회보존위원회, 봉축행사 지원 공모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는 1월 29일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자비의손길·단체봉축행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불교 문화예술단체, 사회봉사단체, 신행단체(서울지역 중심)이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누구나가 공감하는 행사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 행사 △전통 불교문화 발굴 및 재현 행사 △시민과 함께 하는 불교문화 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불교문화 예술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2월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봉축행사 지원신청서(소정양식)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02)2011-1859

송지희 기자

'화합·통합' 강조…전통문화 계승 당부도

원행 스님, 정치인에 당부한 메시지는?

새해 보궐선거·신년 인사차
정치인 조계종 예방 잇따라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만큼, 후보로 나선 이들을 중심으로 불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불교지도자로서 원행 스님은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은 화합과 상생, 국민 통합,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이다.

특히 화합과 상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화된 국민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분열,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는 메시지로, 모든 정치인 예방에서 공통적으로 당부하는 가르침이다.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대한 당부는 최근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민족유산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원행 스님은 2월 4일 나경원 의원 예방서도 "화합이 자비고 상생이 보살도"라며 화합과 상생의 실천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예방에서는 '중도를 통한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1월 26일 안 대표에게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도자로서 화합과 상생을 위한 큰 일을 해주길 바란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든 국민들을 보듬어 안아 주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1월 19일 예방한 김선동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는 연등회 전승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1월 20일 예방한 이언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게는 부산 경남지역의 전통사찰 보존을 당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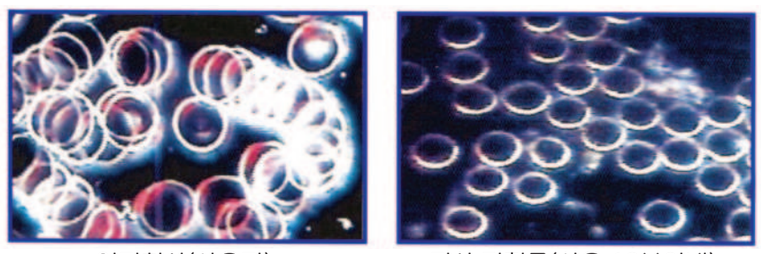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며 가르침을 구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각회 회원)에게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도만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며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송지희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대장균·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신년감사 특별세일 1월 18일 ~ 2월 10일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佛心으로 서울시정 발전 이바지”

서울시의원불자회 4일 발족…회장에 최기찬 의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여기 모인 의원들은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을 언제나 기쁘게 실천하겠습니다.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사회 갈등 해소와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서울시와 우리 이웃 그리고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끊임없는 성찰과 정진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불자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2월 4일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원불자회 창립법회서는 참석한 14명의 의원들의 불심이 그대로 느껴졌다.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회를 구성한 후 시의회 내 불자의원들은 불자회 창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시의회 내 40% 가량이 기독교의원들로 이들은 이미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불자의원들이 모일 정기법회는 하나도 없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20% 가량인 20여 명이 불자로, 이들을 모을 구심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10대 의회 21명 의원 참여해
조계종 정식 신도 조직 인가
격월 사찰 순례 등 신행활동

불자의원들이 그동안 느꼈던 안타까움은 출범식에서 느껴졌다. 최기찬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 다른 종교와 달리 불자회가 없어 매우 아쉬웠다. 21명의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며 “함께 뜻을 모은 만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소외 이웃들을 잊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원불자회 창립법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불자회의 활발한 활동을 서원하고 있다.

이날 발원문 낭독과 함께 최기찬 시의원(금천구)을 회장으로, 김광수 시의원(도봉구)을 부회장으로 출범한 서울시의원불자회는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여야를 떠나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불자회는 격월 1회 불교성지 및 사찰 순례를 하고, 교리공부 자리도 갖기로 했다. 출범식 전 1월 중으로 템플스테이를 먼저 갖기로 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됐다. 서울시의원불자회 창립으로 수도권 사찰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사인 경만석 시의원은 “9대 때부터 몇분이 활동을 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 기왕 모임을 할 것이면 조계종에서 정식 인가를 받고, 국회 정각회처럼 정규조직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에서 종단에 요청, 지난해 12월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늘 출범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서울은 세계 속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정치, 경제, 사회를 총망라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이기도 하다”며 “서울시 불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 수행과 더불어 자비로운 포용, 치우치지 않는 중도정신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불자회를 창립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치하했다.

신도들을 대표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오늘 이 법연은 여야를 떠나 부처님 법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국가와 불교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신행교류와 포교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도법사를 맡게 된 우봉 스님은 “여기 모이신 의원분들은 시정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계시다. 불심으로 서울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조희연 교육감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등이 축사를 보내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조계종복지재단, 조직관리 강화

2월 2일 신년기자회견
관리체계 확립에 중점
소외계층 지원 방침도

조계종 복지관리 체계가 고도화된다.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불교계 기관 증대에 맞춰 재단 운영시스템 개선과 산하시설 관리체계 개선이 진행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인 · 사진)은 2월 2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방침을 밝혔다. 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는 종무기조를 바탕으로 2021핵심과제로 △재단 운영시스템 개선 △산하시설 관리고도화 및 사회복지인재 양성 △자문위 구성 통한 발전전략 기획 △국제개발협력사업 내실화 등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가장 먼저 지난 2018년 일부 산하기관 부실에서 드러난 관리책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해 이사장과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 재단 운영 책임부여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를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이 맡고 실무는 상임이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변경된 체제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돼 법적 책임까지 맡게 된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등기이사가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며, 원장스님은 이사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동안 체제보다 책임성을 더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종단의 기대가 있다”며 “조직체계도 이와 함께 개편해 종단이 복지분야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종단과 책임부분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기에 운영에서는 소통이 강화된다. 자문회 설치와 종령에 근간한 실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조계종 총무부, 사회부, 기획실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한다. 그동안 사찰 캠페인이나 대면 캠페인을 통해 모금을 진행했는데, 온라인 모금으로 전환하여 재원마련에도 나선다.

김남국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운영사업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15%가량 기부금이 감소됐다. 재단의 산하시설 기여금 확충과 산하시설이 지자체 약정된 법인 전입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감면받는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25년간 종단과 사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복지재단은 종단 예산이 10%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민간협력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불교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자리 잡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 기간동안 산하 직업재활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보인 스님은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라며 “산하시설에서 효율성 등으로 어려움을 표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지원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비대면 후원개발 등을 통해 소외계층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학술지도 이젠 친환경 시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자불전〉 22집 USB 배포
기록보관용 50부 제외한
배포용은 PDF로 제작해
포장재도 재활용 종이로

불교학 관련 학회들은 저마다 정기적으로 학회지를 발행한다. 종이 인쇄 학술지가 아닌 USB로 학회지를 배포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진명, 이하 전자불전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전자불전〉 22집을 USB에 담아 회원과 연구자,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전자불전연구소는 “학회지 〈전자불전〉 22집은 종이 적게 사용하기(Paperless)시대에 동참하기 위해 PDF로 제작하고 USB3.0 메모리에 담아 제공하게 됐다. 포장재 역시 이미 사용하던 종이를 재사용했다”고 밝혔다.


PDF로 제작돼 USB에 담겨 발행된 〈전자불전〉 22집. 포장재도 사용하던 종이를 재사용했다.

실제 전자불전연구소는 기록보관용 학술지 50부 정도만 인쇄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불전연구소장 진명 스님은 “연구소장으로 취임하고 하고 보니 기록보관용 이외에 학회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종이 낭비가 심한 것을 줄이고자 PDF로 학회지를 제작해 USB에 담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무경판은 가능한 ‘어떻게 오래 보존할까’ 하는 것이 화두였다면, 불전 전산화 기술은 ‘어떻게 계속 새로 바꿀까’ 하는 것이 주제로 ‘보존’ 보다는 ‘공유’에 목적이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자불전〉 제22집을 처음으로 전자매체로 발행하게 됐다”면서 “이것은 불필요한 나무를 덜 쓰고 종이 쓰레기를 덜 만드는, 불교의 연기적 · 생태적 태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퇴임 앞두고 예방

2월 3일 총무원장 스님에 “불교계 도움에 항상 감사”

퇴임을 앞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양우 장관은 2월 3일 원행 스님에게 “퇴임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다”며 “종교지도자 협의회와 종교평화위원회(KCRP)를 이끌며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 큰 어른으로서 종교 화합에 큰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에 큰 힘을 받았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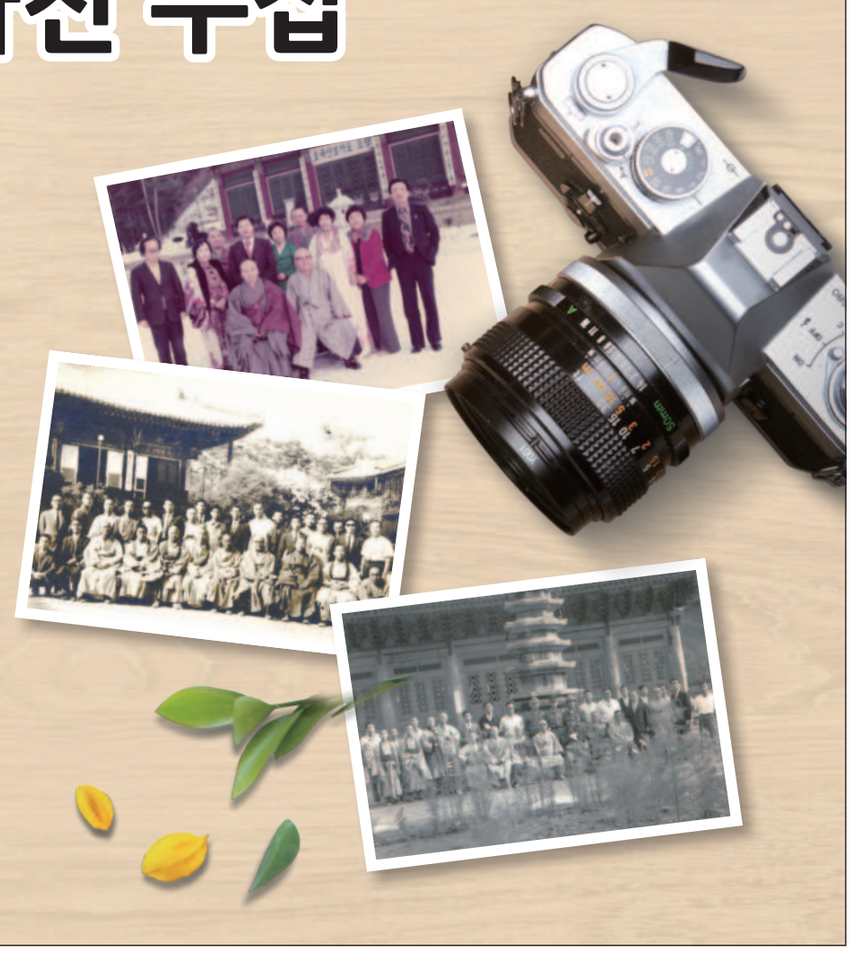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오대산 월정사 삼화상(三和尙) 사진 수집

한암선사, 탄허선사, 만화희찬 선사 사진을 수집합니다.
소유하시는 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한암선사 · 탄허선사 · 만화희찬 선사의 사진이나 그 외에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스캐너를 가지고 방문하여 원본 손상 없이 파일로 만들어 담아 오겠습니다 (단행본 출간 시 책을 보내드립니다). 삼화상 사진 자료 수집에 무루 동참하여, 관련 자료가 집취 되고 한국 근현대 불교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월정사 미디어 실장 **지철**(스님) **전화 010-5019-0334**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에서는 만화희찬 선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대산 삼화상(한암, 탄허, 만화희찬) 사진전 및 사진집 간행
- 오대산 삼화상의 동영상 제작
-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 및 단행본 발간 등

설 명절, 사찰서 방역차례…안방선 설특집 즐겨요

불교계 코로나 기간 설명절 맞아 콘텐츠 제공 분주

봉은사 · 화계사 단독차례 강화
인원제한 등 방역 준수 눈길
포교원 샌드아트 사전 선보여
불교계 방송 설날 특집 다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설 연휴 귀성 자제 방침이 나온 가운데 불교계는 고향에 가지 못한 이들을 위한 다례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먼저 가까운 곳에서 방역 속에 간단하게 합동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교 각계는 사찰 차례 중단 등도 검토했지만, 차례 봉행의 여파가 작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조계사는 22일 오전 8시와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나눠 합동 다례재를 진행한다.

합동다례에 올려진 공양물과 시주금은 동안거 선원 대중공양으로 회향되며 오전 11시에는 황금위패 등이 봉안될 예정이다.

조계사 측은 "스님들께서 정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희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 기간임을 감안해 행사는 예전과 달리 간소하게 진행되며, 체온 측정과 연락처 기입 등 방역 조치는 한층 강화된다. 종단 방침에 따라 다례재가 봉행되는 전각 내부에는 인원수도 가족 단위로 제한된다.

서울 봉은사는 12일 오전 8시와 10시, 오후 2시 등 3회에 걸쳐 법왕루에서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봉은사의 경우 새롭게 불사한 전각들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의 소규모 다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웅전과 지장전, 영각과 선불당, 미륵전, 전통문화체험관 2관 등 다양한 전각에서 단독차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 국제선센터의 경우 2월 12일 오전 10시 설날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매년 탈북민들과의 합동 설차례도 진행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신도 중심으로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계사 설 다례재 안내화면.

국제선센터 측은 "쌀을 기부해 새터민들에게 10kg씩 나눠주는 나눔 행사 등은 비대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도 2월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적광전에서 불교식 다례로 설보내기 행사를 개최한다. 예년과 달리 화계사 다례는 합동과 단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설 당일에는 안방 명절 맞이를 위한 다양한 불교계 콘텐츠가 제공된다. 먼저 조계종 포교원은 부처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담은 샌드아트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코로나 기간 각 가정에서의 수행 지원을 위한 매뉴얼과 콘텐츠를 제공해오고 있는 포교원은 불교성전의 내용을 다양한 미디어로 가공, 사전 공개해 명절기간 대중화를 모색한다.

BTN불교tv는 설 연휴인 2월 11일과 12일 오후 5시 '한국뮤지컬 악극의 귀환', 2월 11일 오후 7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신년특집대담', 2월 12일 오후 10시와 13일 오전 10시 '천년고찰 백운사에 새 부처님 나투셨네'. 12일 오후 3시 울림톡톡 2021 새로운 시작 1부, 23일 오후 3시 2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대담은 희망과 상생의 등불을 밝힐 조계종단 운영계획을 직접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BBS불교방송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처님의 지혜로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법문과 강연으로 특집을 제작했다.

12일 오후 2시 30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 듣는다'를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다. 13일 오후 5시에는 '스님과 신부님의 행복한 명상'으로 각산 스님과 베르나르(서명원) 신부가 출연해 명상을 통한 코로나 블루 치유에 대한 의견을 대중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 밖에 12일 오전 7시, 10시에는 '한국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 특집 보도를 통해 코로나 극복 시기에 불교계가 준비해야 할 부분과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한 불교계 인사들의 진단을 들어볼 수 있다.

BBS불교방송 라디오는 11일과 12일 오후2시 설날특집 '오후가 좋다'가 '집콕 라디오 콘서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트로트 가수 배아현, 금윤아, 금나라 씨 등이 출연한다.

문화재 돌봄 사각지대 문화재로 확대

문화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문화재 돌봄사업 범위가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 ·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87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일상 관리 등을 통해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상시 · 예방적인 문화재관리 체계다. 지난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으로 5개 시 · 도에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 · 도로 전면 확대되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국비 15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보다 539개소가 늘어난 8665개소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문화재청은 "비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황경환 이사장, 청호불교복지대상 수상

1월 25일 시상식… 〈반야심경 역해〉로 저술부문 영예



청호불교문화원은 1월 25일 제8회 청호불교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욱(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황경환(사단법인 21세기불교포럼 공동이사장), 류충렬(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상임이사), 김세곤(불교복지문화연구소장).

청호불교문화원은 1월 25일 제8회 청호불교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청호불교복지대상 공모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고, 구랍 12월 19일 총 5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황경환 이사장은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김사철, 황경환 공저〉로 학술진흥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는 서기 649년에 현장 스님이 산스크리트원문에서 번역한 한문 반야심경이 아닌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 열반으로 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놓았다.

이와 함께 황경환 공동이사장은 수상금 전액을 21세기불교포럼을 통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월 28일 경주시에 1000만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신성민 기자

영등포쪽방촌에 전해진 따뜻한 온정

봉녕사, 떡국떡 · 라면 등 후원물품 직접 전달해 눈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복지 일선에서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했다. 1월 28일, 추위로 얼어붙은 영등포쪽방촌을 훈훈하게 달구어줄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다.

도심에 자리한 승가교육 도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 부설 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 쪽방도우미 봉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쪽방촌에 후원물품을 전달한 것이다.

봉녕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힘든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와 나누고자 한다"며 후원 취지를 전했다.

봉녕사에서 승보공양을 올리며 봉녕사를 외호하는 신도회 봉사단 '세주공양회' 소속회원들은 기금 모연을 통해 컵라면 1200개, 생수400병, 10kg쌀 30포와 떡국떡 1가마, 국거리용 한돈 100kg 등 약 3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마련했다.


봉녕사 총무 원교 스님이 쪽방촌에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총무 원교 스님과 봉녕사 신도회장, 세주공양회, 여성불자들의 신행 및 봉사 조직인 마야회 신도들은 후원품이 눈에 젖지 않고 무사히 주민들에게 전해 질 수 있도록 눈발을 헤치고, 영등포쪽방촌을 누비며 후원물품을 전했다.

봉녕사 총무 원교 스님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따뜻한 한 끼 나눔을 통해 쪽방촌 주민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주공양회 관음화보살은 "신도 80여 명이 꾸준히 모은 기금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쪽방촌주민들을 위한 대중공양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전달된 후원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각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새해, '문없는 방'서 나를 찾아볼까

스스로를 가두고 오롯이 자신을 찾아가는 무문관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사)행복공장은 "오는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6박7일 간 참선 프로그램 '무문관(無門關)'을 행복공장 홍천 수련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작해 11회째를 맞는 무문관 프로그램은 조계종 교육아사리 금강 스님(前 미황사 주지)이 맡고 있다.

무문관 프로그램은 1.5평의 독방에 6박 7일 동안 머물며 혼자서 참선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간화선 수행 책자 '선가귀감'에 대한 금강 스님의 방송강의가 진행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오리엔테이션이나 나누기 시간은 독방에서 Zoom 화상회의 도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 50만원이고 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은 bit.ly/2021무문관으로 하면 된다.

(02)6084-1016 신성민 기자

世界佛教洗心宗祖 聖皇 無邊大師 禮殿 入寂



성황 무변대사 예전께서 지난 1월 23일 오후 5시 일본 대정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영결식은 1월 29일 오전10시에 충북 옥천군 고리산 황룡사 적광전에서 봉행하고, 황룡사 연화대 다비장에서 다비식을 원만히 봉행 하였습니다.
금반(今般) 저희 성황(聖皇) 무변대사(無邊大師) 예전님의 영결식(永訣式)과 다비식(茶毘式)에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가운데도 근원(遠近)을 불문(不問)하시고 조위(弔慰)와 우의(厚意)를 베풀어 주신 덕은(德恩)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황망중(慌忙中)이오라 지면으로 인사드림을 관용(寬容)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 문도 일동은 성황 무변대사 예전님의 유훈을 받들어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 세계불교세심종 종단장 위원회 일동

◎ 49재(매주 금요일 오전10시), 막재 3월 12일(음 1월 29일) 오전 10시 황룡사 대웅전에서 봉행합니다.

세계불교세심종 황룡사 : 충북 옥천군 군북면 환산로 513 **T.010-8822-2370** (농협 : 405012-51-028429 세계불교세심종)

葬儀委員長 : 대혜
葬 儀 委 員 : 효전, 정보, 정광, 도봉, 보광, 월불, 무심, 도진, 운학, 지천, 도각, 서영길
進行委員長 : 탄월
進 行 委 員 : 대호, 정보, 공전, 가법, 청호, 광법, 대각, 도해, 인봉, 성운, 통융, 적연, 성일, 혜천, 혜일
日 本 委 員 : 高盛順江, 太田路子, 山智栄子, 水美津, 清水大吾, 水薫, 清水稟, 清水大成, 田中博英, 水博 清水満津江, 安達留男,安達美耶子,劉英美, 中山獎,中山紅苑
命薄士委員 : 박영길, 구기주, 고중철, 서유정, 석용현, 이성주, 유재기, 조순희, 최정하, 이영욱
布 敎 委 員 : 최건주, 김청환, 김종온, 우대영, 김옥기, 권오준, 우대준

門中代表 : 무진본
門徒代表 : 범홍
상 좌 : 범홍, 대혜, 정보, 정광, 천심, 선암, 공전, 해인, 탄하, 금하, 덕룡, 대호, 정도, 금곡, 효천, 도운, 혜연, 우봉, 혜월, 도연, 일암, 월불, 지천, 무일, 대종, 청호, 허월, 세심, 무심, 도각, 도봉, 탄오, 명법, 가법, 은광, 관음, 여여, 백성, 세봉, 풍오, 심산, 효명, 풍지, 하천, 덕호, 보혜, 금산, 효광, 효성, 도진, 도성, 운학, 하전, 탄월, 보산
손상좌 : 성운, 적연, 수일, 수지, 대각, 인봉, 혜일, 학성, 보연, 도연, 대연, 일광, 혜광, 통융, 법진, 보경, 혜철, 성천, 성도, 일광, 백초, 지덕, 혜천, 연화, 정각, 동명, 고성, 고성, 송덕, 서운, 홍조, 반야, 강천, 연광, 지덕, 대산, 성원, 수안, 성우, 성문, 일심, 무량, 성오, 원명, 성일, 성원, 성각, 보광, 도명, 지천, 도각, 법경, 법명, 기림, 도광, 임성, 세연, 성수, 성민, 명법, 혜경, 금천

聖皇 無邊大師 禮殿 世界佛教洗心宗 宗團葬 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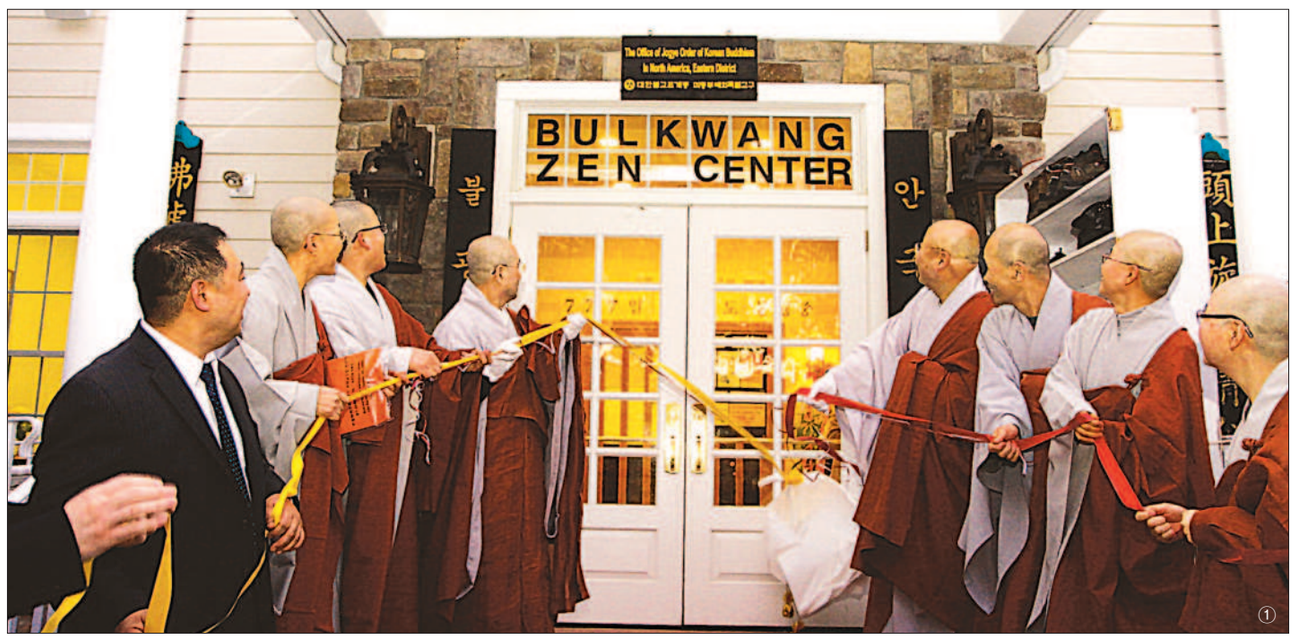
2005년 법장스님 첫 공식 발언…5년 뒤 법제정

[진단]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1. 해외사찰 감소현황과 원인
2. 대안과 과제
3. 모범 해외사찰 사례
4. 법제정 과정 및 경과
5.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①해외특별교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미국 동부해외특별교구. 법개정으로 현재는 지회로 운영중이다. ②2005년 미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은 처음 공식석상에서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언급했다. ③지난해 해외특별교구장에 임명된 정우 스님(사진 오른쪽).

'해외특별교구'와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종단 최초로 공식 언급한 사람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1941~2005)이다. 2005년 5월경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동부·중부 승가회 스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법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해외특별교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960~1970년대 이후 전세계에 한국사찰이 창건돼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은 시점인 셈이다. 당시 해외사찰은 종단 차원에서 건립되기보다 개인 원력에서 출발한 사찰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종단이 해외사찰 관리 및 교류에 관한 문제를 종무행정의 틀 속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민하기까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소요됐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미국 동중부 승가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은 동중부 지역의 승가회장이었던 도범스님(보스턴 문수사 주지), 휘광 스님(뉴욕사원연합회장), 원영 스님(뉴욕 보리사 주지) 등과 만나 현지 사찰들의 사정과 요청 등을 가감 없이 듣고 고민했다. 뉴저지 대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님들은 특히 해외포교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다뤄야 할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다 해외특별교구의 설치였다.

또 스님들은 △사미계 후 해외포교활동 인정 △종단 출가연령 제한 폐지 △뉴욕한국불교문화원 건립 등을 제안했는데 사미계 후 해외포교활동 인정 여부도 종무행정의 범주로, 큰 틀에서 해외특별교구의 역할에 포함됐다.

당시 종단은 해외사찰과의 기본적인 교류는 있었지만, 그 특성과 종무행정상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외사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도 국내스님들과 차이 없는 종법기준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해외 거주기간을 승가고시, 법계에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찰과 관련해서도 예·결산을 비롯한 행정처리를 한국사찰 기준으로 시행하는 데 대한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이날 동중부 승가회 스님들은 "해외 거주시 비구계나 3급 승가고시때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젊은 스님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현지 역시 포교할 수 있는 스님들의 수가 적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
미국서 중·동부스님과 간담회
다양한 어려움·고충들은 이후
'해외특별교구' 설치 공식 약속

현지 스님들을 통해 해외사찰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해 들은 법장 스님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외특별교구'를 제시했다. 이는 미국 동중부 스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지만, 종단 입장에서도 해외사찰들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2005년 초 종헌에 군승특별교구(군종특별교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이에 법장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법적인 방안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특별팀을 발족시켜서라도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미계 후 해외포교활동 인정과 출가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승가교육제도 개선추진위와 교육원 차원에서 진행 중인 법개정에 대한 언급으로 대신했다. 당시 조계종의 출가 제한연령은 40세였다.

법장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통한 해외사찰들의 고충해결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갑작스레 입적하면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이듬해인 2006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관 스님(1932~2012)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해외특별교구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스님은 특히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지에도 한국사찰이 많아진 만큼, 한국과 후원 및 유대감으로 종단과 사찰이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특별교구 설치는 물론, 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단적 의지와 발맞춰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었다. 조계종 미주승가회 준비위원회가 창립해, 미국 전역에 흩어져있는 개별 사찰들의 구심점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미주승가회가 추진한 해외특별교구는 국제포교를 총괄·관리하는 '해외포교 총본산'의 역할을 수행할 종단 공식기구다. 당시 해외 사찰에서 주지 교체시 빈번히 발생하던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계종 현지 비영리법인체' 형태로 해외특별교구를 창립해 재산권과 인사권, 감사권 등 일체 권한을 법인에 귀속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주승가회 상임공동회장 도현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미주승가회가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의 모체가 되어, 재산관리나 행정지도 등 조계종의 관리감독을 받겠다"고 밝혔고 지관 스님은 "미주승가회의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화답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예방에 이어 "최대한 빨리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새겼고,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전해오는 등 '해외포교의 청신호'로서 답보상태였던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다만 숭산 스님의 '世界一化' 원력을 계승한 홍법원이나 관음선종 등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사찰에 대해서는 고민의 지점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임기가 끝나는 2009년까지도 좀처럼 완성되지 못했다. 다만 지관 스님은 성과자료집을 통해 향후 과제로 '해외특별교구의 설치'를 제시했다.

이어 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자승 스님은 지관 스님이 남긴 과제를 받아 무애 스님을 해회특별교구 특보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현실화에 착수했다.

32대 지관 스님도 지속 추진
33대 자승 스님 때 법제정돼
동부지회 출범 후 효과 미미
"실질적 적용 위한 변화 필요"

그리고 2010년 5월,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조계종은 입법공고에서 '종단이 해외포교와 한국불교 국제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한국불교 국제화, 해외사찰 활성화, 국제포교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미등록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 유도 및 등록사찰의 관리, 해외거주승의 승가위의 확립, 사찰의 재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제시했다.

법령의 골자는 해외교구본사를 총무원 총무부에 두고 필요에 따라 해외 현지에 지역별·국가별 사무소를 법인 형태로 개설할 수 있으며, 사찰 등록과 취소, 해외교규 재적승의 구성과 해외파견승, 해외교구본사 지위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됐다.

법제정에 이어 2011년 8월 조계종 첫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됐다. 처음 설립된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등 미국 동부 16개 주와 온타리로, 퀘벡 등 캐나다 동부 6개 주를 관할지역으로 설립승인됐다.

초대 교구장 휘광 스님(불광선원 주지)은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그동안 해외사찰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며 "이제 종단과 해외 스님들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만큼 해외특별교구가 해외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도 "그동안 미국에서의 포교는 스님 개인의 원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 해외교구가 설립됐으니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조계종은 미동부해외특별교구와 지속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해외교구 설립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미국 외 지역이나 교구 활성화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2017년 조계종은 침체되고 답보상태에 빠진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이 해외 현지에 국가별·지역별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하는 시스템인 데 반해, 개정된 법안은 국내에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해 해외사찰 및 해외포교 지원 종무를 총괄토록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동부해외특별교구는 지회로 변경됐다.

교구에 비해 지회 설립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법안은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해 관할 범위내 등록사찰 10개 이상, 조계종 소속 승려 20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지회는 이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부담을 줄였다. 해외특별교구장은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지회 설립 절차 및 해외지회장 선출, 해외사찰 등록 및 주지 품신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사무처를 국내에 둬 종무행정과의 연관성 및 현실 적용률을 높이고자 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개정에 따른 해외포교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되레 해외사찰 현지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불교의 해외포교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넘었고 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해외사찰·스님 관리 및 지원, 인력활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특별교구법과 그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법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김태호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1년 3월 첫째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코로나 설날, 따뜻한 나눔으로 이겨내

부산 및 경남 사찰 나눔 행보 이어져

부산 불교 7000만원 상당 백미
자비의 백미 및 성금 등 줄지어
힘든 시기 나눔 지속 등 '훈훈'
"코로나 나눔으로 이겨 낼 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코로나로 인해 외롭게 설 명절을 맞는 소외 계층을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신도단체들과 각 사찰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 및 성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설날을 맞아 2월 4일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부산진구청, 금정구청, 남구청에서 각각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한 백미는 총 7000만원 상당의 백미 2010개이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부산진구청에 850포(3000만원 상당), 금정구에 580포(2000만원 상당), 남구 550포(2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각 기관에 전달한 쌀은 독거노인, 저소득 세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에 전달되며, 각 동사무소에서 해당 세대에게 직접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이자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대표 박수관 회장은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이면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30년 이상 꾸준히 펼쳐왔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정의 손길이 더욱 더 필요한데 오히려 소외 이웃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박수관 회장님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앞장섰고 저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날 백미 전달식을 위해 박수관 회장은 5000만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2000만원을 기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강서구 **조계종 청량사**가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자비나눔을 전개했다.

청량사(주지 운암)는 1월 29일 부산 강서구청 구청장실에서 2021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노기태 청장 외 관계자 및 청량사 불교대학 지도법사 능서 스님, 김무겸 신도회장, 노미옥 불교대학 총동문회 총무가 동참했다. 전달 성금 및 현물은 총 532만 2,360원이며 지역 내 어려운 지역민에게 회향 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원들이 2월 4일 부산 진구청을 찾아 쌀 2010포대를 전달하고 있다.

전달식에서 능서 스님은 "주지 운암 스님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이다. 오늘 전달하는 자그마한 정성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야사(주지 혜명)는 1월 25일 반야사 경내 및 창원 회원구청에서 '제21회 부처님의 자비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을 진행했다.

반야사는 이날 백미 100포(350만원 상당)를 회원구에 전달했으며 백미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 경문 스님과 박주야 창원 회원구 구청장이 참석했다.

주지 혜명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더욱 힘겨워졌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1월 28일 남구청에서 '이웃돕기 성금 및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남구불교연합회는 성금 300만원과 쌀 2600kg(6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성금 및 쌀은 남구 지역 내 주민센터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전달식에는 회장 지원 스님, 감사 능후 스님, 옥천암 주지 대각 스님,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박재범 남구청장이 동참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다. 서로를 위한 자비심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 정종사(주지 여해)는 1월 28일 반야보전에서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정종사는 이날 라면 300박스(450만원 상당)를 양산 평상동 및 장흥마을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여해 스님, 최월선 양산 평상동 동장 및 장흥마을 지역민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여해 스님은 "자비나눔에 동참해주시는 불자님들이 계셔서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불자님들이 보시바라밀을 통해 성장하도록 기원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 왕복사(주지 자우)도 2월 3일 경남 산청읍사무소에서 '결손가정 청소년 돕기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 물품은 컵라면 및 햇반을 담은 선물박스 60개(2백20만원 상당)이며 전달식에는 왕복사 주지 자우 스님, 현문 스님, 김종호 신도회장, 신현영 산청읍장이 참석했다. 선물 박스는 결손가정 6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지 자우 스님은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비나눔을 결심하게 됐다"며 "특히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는 조손 가정이 많다는 말에 불자들이 십시일반 기도에 동참하며 마련해 전달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동명불원,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

1200여 불자 동참, 국내 '최대' 좌불

국내 최대 좌불이 봉안됐다.

부산 동명불원은 1월 29일 경내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증명, 김해 해광사 주지 원공 스님, 범어사 상노전 석경 스님이 집전했다. 점안식은 유튜브 부산불교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으며 온 · 오프라인 동시 법회로 진행됐다. 아울러 BBS 불교방송을 통해 3회에 걸쳐 방송된다.

동명불원 대웅전 삼존불은 국내 좌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석가모니불이 본존불이며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을 모셨다.

이번 개금불사는 동명불원 창건 이후 두 번째 개금불사이다. 20여 년 동안 불상이 균열되고 금분과 좌대 단청의 퇴색으로 장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동명불원이 1월 29일 경내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삼존불 불사는 지난 9월 14일 착공해 올해 1월 3일, 4개월에 걸쳐 준공됐다. 이번 개금불사를 위해 1265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시대이다. 나라의 경제 발전과 전법을 위해 노력한 고 강석진 회장의 공덕이 녹아 있는 동명불원의 불사가 회향됐다.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불사를 통해 자성불의 보배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도 부산 자비도량으로"

삼광사 · 광명사 등 천태종 사찰 주지 진산식 개최해

부산 천태종을 대표하는 삼광사와 광명사가 주지 진산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삼광사(주지 영제)는 2월 1일 제13대 주지 영제 스님 취임법회를 경내 지관전에서, 광명사(주지 춘광)는 2월 3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15대 주지 춘광 스님 취임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천태종 대표 도심도량 삼광사와 광명사를 새롭게 이끌어 갈 주지 스님들은 '포교'와 '수행 정진'으로 불도 부산을 자비의 불국토로 만들어 갈 것을 천명했다.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은 "중생들의 고뇌와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이어 "불자님들은 관음정진 수행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부산에 가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포교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 포교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 천태종을 대표하는 삼광사와 광명사가 주지 진산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진은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이 화동에게 꽃을 받고 있는 모습.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삼광사는 한국불교와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다"며 "모두 하나가 되어 대조사님의 뜻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천태종 수행가풍을 이어 기도도량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광 스님은 1971년 대한불교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대한불교천태종 교화원 의전실장, 총무원 규정부장, 교무부장, 감사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대구 대성사, 서울 성룡사, 삼룡사, 강릉 삼개사, 부산 삼광사, 서울 관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국제불교 한 · 중 · 일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섰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부산교구, 신년하례 봉행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가 제19대 부산교구 종무원장 취임 및 신년하례를 봉행하고 2021년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원장 마나)는 2월 1일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신년하례 법회 및 제19대 부산교구 종무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년하례 및 종무원장 취임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상축,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원장 스님의 취임사에 이어 국장 스님들의 임명식도 이어졌다. 총무국장은 천명사 주지 보신 스님이 임명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명궁(名弓)이 쏜 화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돌멩이 하나로 꿩 두 마리 잡았다(水地比)
천문동(天門冬)과 통쾌희(痛快喜)의 합동작전 개시!"

천문동, 회화실, 강황, 황금, 도라지 外 3종 성분 및 효능
보스웰리아, 두충, 우슬, 홍화, 유근피 外 2종 인터넷 참조

기침, 가래, 비염, 호흡기, 기관지, 천식, 폐질환
무릎, 팔다리, 허리, 관절통, 뒷목, 연골 보호, 소염, 진통

※부디 99세까지는 기침, 가래, 비염, 기관지, 호흡기, 폐 질환, 흡연, 바이러스(천문동)에 맡기시고 무릎, 팔다리, 손목, 뒷목, 허리관절통과 연골 소염진통은(통쾌희)가 마무리할 것이니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제조과정 : 보스웰리아, 두충, 우슬, 홍화씨 등을 깨끗이 정제한 후 대형 열 탱크에 넣고 가열하여 진액(一名 엑기스)을 추출한 후 미리 법제한 국산 토종 천문동과 회화 열매 분말과 합제 한 후 쇳가루와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녹두대 丸으로 제조되었다.
※워낙 고가의 재료와 제조과정이 까다로워 판매 보급가가 부담이되실까 염려되어 일단 무료체험 기회를 드릴 것이니 희망자는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200명에게만 배송해 드립니다. 배송비 4,000원만 부담하십시오! 단 무료로 드시는 대신 10일 동안은 꾸준히 드시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 후에 선택과 판단은 그때 가서 하십시오.영양제나 보약처럼 장기복용이 아니라, 짧고 굵게 20日~30日이면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내 몸이 답을 줄 것입니다.
진솔한 마음과 정신의 혼을 담아 지극히 효심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자: 林大業)
※주소 : 문자 주십시오. 010-7159-5737/010-8181-2699 농협계좌 : 355-0068-7416-53 (호산헬시코리아, 임대업)

| 무료 체험용 |


50g 10일분

호산 헬시코리아
www.hosanhealty.com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할 의무다!
왜? 자식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가? (비지니스, 효도선물로는 최고의 제품)

대광불자회 30년, 장애인불자 신행 도약

1월 28일 대구 남구 새 법당서 기자회견

1991년 장애불자 16명서 창립해 바자회 등 소외 계층 나눔 나서 매주 금요일 법회, 복지에 앞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광불자회는 1월 28일 남구 새 법당에서 창립30주년 법회를 열고 장애인포교 비전을 밝혔다.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장애인불자신행 단체인 대광불자회(회장 이재달)는 1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구 남구 이천로26길에 위치한 새 법당에서 지역 교계언론과 도약과 포부를 밝히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광불자회는 기존 법당이 있었던 중구가 재개발되면서 법당 이전을 추진해 왔다.

대광맹인불자회는 1991년 9월 대구 남산동 보현사에서 16명이 모여 창립해 1992년 10월 법당 봉불식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고 쌀과 장학금 등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1993년 이후에는 사회시설에 안마봉사, 대구 · 경북시각장애인 포교를 위한 녹음테이프 제작 보급, 사물놀이단 창단, 직업재활교육생 무료급식, 〈금강경〉 암송대회, 점자 〈천수경〉 제작 배포 등을 진행했다.

2006년에는 기초교리강좌를 개강하고 대구 중구 독거어르신들과 함께 성지순례 음식잔치봉사도 가졌다. 이에 그 해 대한불교진흥원 주관 대원상 단체특별상도 수상했다.

2016년 대구 중구청, 남산사회복지관 협력으로 시각장애인문화해설사 7명을 배출했으며 100건 이상 문화해설을 담당케 했다. 현재 150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요가교실, 민요교실 등 다양한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대광불자회는 이날 포교사업으로 매주 금요법회를 열고, 지역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해 정기법회 및 5대 절기 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사업 또한 확장해 매년 수시로 쌀과 김장김치, 생필품 나누기를 지속한다. 문화사업으로는 영화보기 및 체험행사, 스포츠 관람 등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 성지순례와 시각장애인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구 중구 근대 골목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결식아동 돕기와 지역아동센터 도서지원, 불교복지시설 안마봉사,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전문봉사자 배양 프로그램을 폭넓게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재달 회장은 이날 대광불자회는 "시각장애인불자들의 권익보호와 포교 및 신행활동을 위해 결성된 대광불자회는 이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지사업 및 신행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새 법당을 중심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점자도서 및 녹음테이프 등을 제작 보급하여 3만명에 달하는 지역맹인을 포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부처님품에서 안락한 마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갔으면 한다. 대광불자회의 아름다운 동행에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당도해 절실한 시절 인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림 대광맹인불자회 사무국장은 "향후 대광맹인불자회를 법인으로 등록해 새 법당을 중심으로 신행단체 뿐만 아니라 직업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53)256-0114



광주불교연합회 유튜브채널에 소개된 연희단 영상 캡쳐.

광주불교聯, 연희단 영상 유튜브 연재

SNS 기반해 봉축 활동 홍보 전개

코로나19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불교계의 법회와 행사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영상과 SNS를 기반으로 하는 포교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중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사찰 연희단의 모습을 영상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희단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서 사찰을 대표해 율동을 하는 신도들을 말한다.

광주지역 사찰 연희단은 지난 2016년에 첫 시작을 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12개의 사찰과 단체가 연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연희단의 연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튜브 연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총무부장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은 "연희단은 전통율동과 노래로 신명나게 즐기는 모임인데, 서로가 만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다"며 "이번 각 사찰 연희단의 영상은 서로 보지 못한 긴 시간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연희단 뿐만 아니라 광주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다양한 준비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향림사, 증심사, 연화사(지산동) 등이 만들어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고, 향후 다른 연희단도 추가로 공개된다.

연희단에 참여해 영상을 본 박성준(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씨는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환희스러웠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영상에는 연희단의 연습 장면과 봉축행사장에서의 공연 모습 등이 담겨 있으며, 사찰 신도의 자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연희단에 이어 전통등(燈) 만드는 과정 등도 영상으로 만들어 4~5월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기당 성원대종사 39주기 추모재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운기당 성원대종사 3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1월 31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추모재에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범여 스님, 법현 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문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날 추모재에 참석한 스님들은 운기당 성원대종사의 유지를 이어 수행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도를 대표해 대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준 문도 스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41년 만에 회수

부여 무량사 목조불 좌상 2점 2019년, 2020년 이은 세번째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앞면)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뒷면)

1980년에 도둑맞은 것으로 알려진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전북 유형문화재 제14호) 목판 1점과 부여 무량사 목조불좌상 2점이 환지본처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서울 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공조수사를 통해 2006년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내에서 도난당한 '하서 유묵 묵죽도판' (전남 유형문화재 216호) 묵죽도판 3점을 비롯해 전북 유형문화재 제14호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1점, 부여 목조불좌상 2점 등 총34점의 도난문화재를 회수했다,

문화재청은 사범단속반은 2019년 7월 도난문화재 관련 첩보를 입수해, 문화재 매매업자와 문화재사범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였고, 수사 끝에 도난문화재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석가모니 이후 서역 및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글로 쓰고 여기에 민중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배치,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석씨원류' 는 1468년(성종 17년) 왕명에 의해 판각됐다. 임진왜란때 불타 없어졌으나 그후 사명대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구해온 것을 최서동과 해운법사가 이를 대본으로 하여 조선 인조 26년(1648)에 복간했다.

가로 39㎝, 세로 29.5㎝의 목판본으로 원래 103매의 목판으로 판각되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절반가량이 망실되고 50매 100판의 원판과 별도의 2매 4판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석씨원류' 판각은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 중 걸작이며 우리나라 미술사 특히,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현재 선운사는 망실된 '석씨원류' 목판본 복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밖에 충남 무량사 목조불좌상 2점도 함께 회수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사찰, 방역당국에 팥죽 전달

복암사 · 소원정사 · 광덕사 등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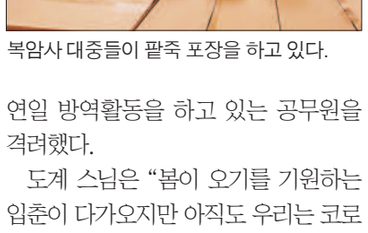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광주에서, 불교계 사찰들이 잇따라 방역당국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복암사(주지 도성, 광주불교연합회장)는 1월 29일 광산구청 보건소를 방문해 팥죽 500명분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도성 스님은 "팥죽은 예로부터 나쁜 액운을 막아주고 건강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모두 건강하게 방역활동을 해가기를 기원한다"고 전달 의미를 설명했다.

광산구는 지난 1월 27일 TCS국제학교 코로나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으면서 집단 감염의 지역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한편, 소원정사(주지 도계), 광덕사(주지 상진)도 2월 2일 남구청 상황실을 방문하고 팥죽 500명분을 전달하며, 연일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격려했다.


복암사 대중들이 팥죽 포장을 하고 있다.

도계 스님은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입춘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 따뜻한 온기의 팥죽으로 추운 마음을 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최근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각 사찰의 후원으로 각 구청과 병원 등에 팥죽 전달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미얀마 불교계 군부 쿠데타에 비판 성명

1월 26일 반대표명…
일부 스님 구금조치 당해

2015년 문민정부 1기 수립해
실권은 군부가 그대로 장악
2020총선 후 문민2기 출범에
쿠데타, 불교계 움직임 이목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7년 민주화 운동 당시 거리에 나선 미얀마 스님들의 모습. 사진출처=로이터통신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인사를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7년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불교계에서 쿠데타 예고에 반대성명을 냈지만 강행된 사태로, 군부는 현재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일부 스님들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월 1일 성명을 통해 주요인사 구금조치를 실행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장차관 24명은 군부인사로 모두 바뀌었으며 양곤국제공항 또한 5월 말까지 폐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는 2015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가 총선에서 압승하며 문민정부 시대를 연바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NLD가 전체의석 83.2%를 석권하며 2기 시대를 예고했다.

이번 군부 쿠데타는 실권을 쥐고 있었던 군부가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차이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일으킨 것이다. 2007년 군부에 대항해 1만명의 스님들이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미얀마 불교계는 이번 쿠데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승려연합'은 쿠데타 예고에 1월 26일 "평화롭고 법대로 정의롭게 진행하길 당부한다"며 박단다 꾸마라 비원다 연합회장, 박단다 신디마 비원다 연합회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미얀마 불교계는 사태 추이를 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는 미얀마 민주화를 이끌던 쉐냐와 스님을 구금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에 국가 비상사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거리로는 나서지는 않고 있으며 사회거부운동이라 하여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는 등 소음으로 불복종을 표현하고 있다.

최근 UN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미얀마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미얀마 불교계 역할에 전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1962년 네윈의 쿠데타 이후 53년간 군부 통치를 받아왔으며 이에 시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1988년 민주화 운동 때는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2000여 시민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1988년 8월 8일에 일어나 8888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른다.

1990년 선거가 진행돼 민주화 진영인 NLD가 압승하지만 군부는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헌법이 정지된 상태서 군부 독재를 계속했다.

이에 1996년과 2007년에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진행됐다. 미얀마 불교계는 2007년 대대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日, 세츠분(節分)행사 축소 진행

각 사찰별 특별 기도회 봉행, 참배객 축소


불전에 올릴 콩을 준비하는 스님.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 신문

불교세시풍속이 다양하게 남아있는 일본. 매년 봄 입춘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세츠분(節分)의 풍속도도 코로나 19로 인해 크게 바뀔 전망이다. 1월 30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코로나 19 시국 속 각 사찰과 가정에서 진행될 세츠분 행사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입춘 전날을 세츠분(節分)이라 하여 다양한 세시풍속이 전한다. 예로부터 봄에 들면서 여러 돌림병이나 기근이 돌던 것에서, 이를 피하고 장애가 없는 봄을 맞이하길 바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볶은 콩을 나이 수대로 먹고, 도깨비로 분장한 가장에게 콩을 뿌리며 역병과 불운을 쫓아내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때에 흔히 "복은 안으로 들어오고, 도깨비는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외친다. 각 사찰에서도 불전에 축원한 콩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산문에서 콩을 뿌리는 등의 풍습이 전한다.

한편 코로나19가 심각한 현 시국에서 세츠분 행사의 모습이 대폭 바뀔 예정이다. 매년 절분 기도회와 행사에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오사카의 신쇼지 별원은 "올해 세츠분 행사는 경내 법당에서만 콩을 뿌리고 특설무대 등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쇼지 별원 측은 "축원한 콩을 배포하는 것은 수량을 확대, 예년의 3배인 3만 2천 봉지를 참배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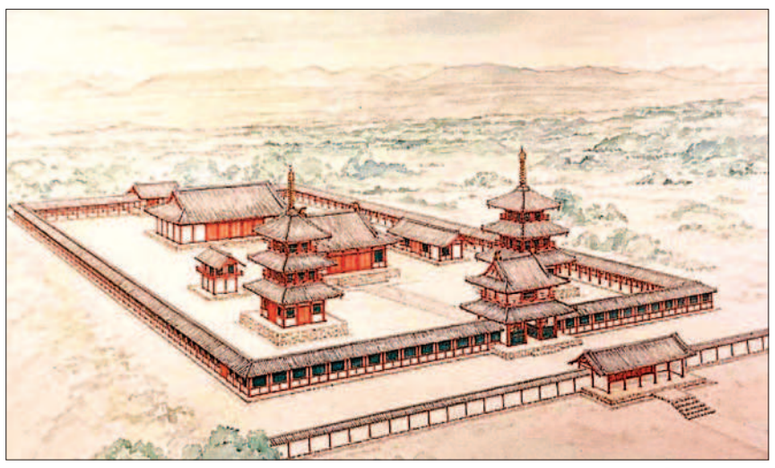
도쿄의 고찰인 죠조지(增上寺) 역시 콩 뿌리기를 중단했다. 죠조지 측은 "사찰측에 남은 기록상에서 세츠분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죠조지는 작년 가을 시점에서 장기화에 대비해 세츠분 행사용 콩의 주문을 예년보다 대폭 줄인 상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닛코(日光)의 린노지(輪王寺)측도 참배객들과 함께 경내에서 콩 뿌리기를 중단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1천여 년 전 사라진 거찰 재주목

日, 코도(廣渡)폐사지의 비밀


코도지 복원 상상도. 사진출처=코베신문

천여 년 전, 대규모로 건립됐으나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은 채 폐사로 쇠락해 터만 남은 고대의 사찰이 있다. 폐사가 된 이유도 명확히 전하지 않았던 폐사지의 비밀이 조금씩 풀리면서 다시금 유적지가 주목받고 있다. 1월 30일 일본의 '코베신문'은 잊혀져 있던 폐사지를 특별 보도했다.

효고(兵庫)현 오노(小野)시에 소재한 코도(廣渡) 폐사지 유적. 7세기말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찰의 유적은 현재 공원으로 바뀌어 주민들이 찾고 있다. 오노시립박물관의 이시노 시게조 관장은 "이 공원이 폐사지라는 것은 지역 설화와 유구 등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70년대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 사찰은 중심에 금당이 있고, 금당 앞에 좌우로 3층 목탑이 있는 '야쿠시지(藥師寺)식 가람배치'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사찰은 전체가 회랑으로 둘러 쌓여있고 승방과 강당을 배치한 광대한 규모의 거찰이었음도 밝혀졌다. 이후 1980년 일본 정부는 이곳을 국가사적으로 지정, 유적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고 자료관 등을 건설했다. 현재 유적지엔 금당과 강당, 동서 양탑의 기단이 복원돼 있으며 1/20로 축소된 복원 모형이 야외에 전시되고 있다.

이시노 관장은 "이정도의 광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찰의 이름이나 역사, 관련 인물 등의 정보가 전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지역에 건립된 사찰들이 아직까지 건재한 것에 비하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이곳은 지역명을 따 코도지(廣渡寺) 유적, 혹은 코도 폐사지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비밀에 감싸져 있던 사찰의 흥망에 관한 역사가 최근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이시노 관장은 "발굴 조사후 편찬된 조사보고서에 더해 지금까지 쌓인 지역사 연구결과에 따라 폐사의 이유가 특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찰의 근처에는 원래 큰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규모 촌락이 산재했던 것으로 전한다. 또한 이에 맞춰 지역 호족들이 자신들의 권위향상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해 대규모 사찰의 조영이 유행했다는 점이 사찰이 건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지역사 연구에서 당시 사찰 근처에 있었던 하천이 거듭해서 범람하며 인명과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음이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이 지역에 근간했던 호족들이 중앙정계에서 탄핵되거나 강의 범람 등의 자연재해에 따라 거찰을 유지할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발굴조사에서도 귀족들의 내전이 격렬했던 11세기 이후로 사찰이 보수되었거나 존속했다는 유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시노 관장은 "일반적으로 병화나 자연재해로 사찰이 쇠락하는 것에 비해, 사회, 경제적 이유로 폐사가 됐다는 것과, 동시대에 건립된 사찰들은 현대에서 건재하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만 비구니 스님이 헤비메탈을?

뱌오 벤 스님, 헤비메탈 그룹 '달마' 멤버로 활동



대만에서 6인조 헤비메탈 밴드 멤버로 활동 중인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미국 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Angeles Times)는 1월 29일(현지시간) 대만의 6인조 헤비메탈 밴드 '달마'(Dharma) 멤버인 비구니 스님 뱌오 벤(Biao Ben · 50)을 소개했다.

뱌오 스님은 달마의 본격적인 공연전 무대에서 독경을 하며 오프닝을 한다. 멤버들이 일렉트로닉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는 동안 무대 한편에서 불구(佛具)의 하나인 요령 등을 친다.

그저 평범한 비구니였던 뱌오 스님이 헤비메탈 그룹에 속한 계기는 무엇일까. 뱌오 스님은 "지난해 드럼 강사이자 '달마'를 처음 만든 잭 팅(Jack Tung)을 만났다"며 "처음 헤비메탈을 들었을 땐 너무나 낯설었지만 멤버들과 함께 공연하면서 헤비메탈만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다고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헤비메탈로 표현하는 달마 멤버들의 열정도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헤비메탈이 부모와 함께 절에 다녔던 기억 외에 불교에 친숙하지 않은 젊은 대만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느꼈다"고 했다.

"함께 활동할 비구니 스님을 섭외하기 위해 대만에서 4000여 불교 단체를 방문했다"는 잭 팅은 "나는 혹시라도 승가에 불쾌감을 줄까봐 걱정했지만, 뱌오 스님을 비롯한 여러 비구니 스님들이 환영했다"며 "16년 전 티베트 불교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그것(불교음악)과 헤비메탈을 결합하는 임무를 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그룹 달마는 2019년 10월 첫 공연을 열며 정식 데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연 금지 조치가 풀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공연을 열었다.

박정현 객원기자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깨달음 언어로 하루1분 '비움'훈련…마음방역



하루1분 마음챙김
아잔브람 지음/각산 스님 감수
여현 옮김 / 느낌 펴냄
1만 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스트레스는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울 때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불안할 때, 그냥 마음 편히 지내세요. 자신을 운전자가 아닌 승객으로 생각하고 삶의 여행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냥 지켜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입니다."

세계적 명상 스승 아잔 브람 스님이 1년 내내 마음 충전할 수 있는 잠언 형식의 행복 명상록 〈하루 1분 마음챙김〉을 펴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케임브리지 대학서 이론 물리학 학위를 받았고, 23세에 방콕서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태국 수도원서 고승인 아잔 차 밑에서 9년간 수행을 마치고 호주 퍼스로 건너가 남반구 최초의 사찰을 세웠다. 그 후 그의 비전, 지도력,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호주 커틴 대학교로부터 존 커틴 메달을 받기도 했다.

이 책에는 아잔 브람 스님이 40년 동안 종교와 국제적 영적 수행자로서의 경험서 나온 따뜻하고 지혜로운 인용구가 담겨 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매일 생각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총 365개의 지혜로운 경구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어 원문도 같이 수록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어떤 노동이든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또한 욕심을 부리며 갈망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마음은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얘기한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아잔 브람 스님 경구를 통한 하루 1분 명상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참 '나'를 만나보자.

감수를 맡은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2년전 신도들과 호주에 있는 아잔 브람 스님 사찰에 가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영문으로 된 자신의 웹툰 법문집을 선물로 주셨죠. 단숨에 읽어보니 무척 힐링이 됐습니다"며 "깨달은 사람의 언어는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인을 힐링시켜주기 때문이죠. 글 재주의 기교로 뽑아낸 글들은 직접적으로 감흥이 일어나지만 정신적인 근원의 세포를 바꾸긴 힘듭니다. 그런데 깨친 이의 언어는 말그대로 법문이었습니다. 한글자 한글자가 마음을 쉬게 만들어 주고 삶을 바꾸어 주죠. 영어에 능통하고 수행을 많이 한 신도에게 번역을 맡기고, 6개월에 걸쳐 꼼꼼히 감수해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아잔 브람 스님의 스리랑카 재단서 그동안 설한 법문들 중 좋은 것만 가려 뽑아 묶은 이 책의 핵심 가르침은 마음을 일깨우게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어느 대목을 편하게 읽어도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각산 스님은 아잔 브람 스님 법문의 장점은 짧지만 촌철살인 같은 깨달음의 언어로 돼 있어 이해가 빠르다고 설명한다. 가령 "일이 많은 것은 힘들지 않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다만 동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각산 스님은 "이런 언어로 돼 있으니까 확 와 닿는 것입니다. 각자가 힐링된다는 것은 쉰다는 의미죠. 그것은 충전이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충전되면 인간 관계의 갈등, 게임중독 치료 등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365가지 중에 하나만 건져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아잔 브람 스님의 이 주옥같은 감로 법문은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산 스님은 "가장 훌륭한 법문은 그 법문이 끝난 뒤의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잔 브람 스님의 법문은 3박자가 모두 맞는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잔 브람 스님의 깨달은 언어로 구성돼 있으며, 겸손한 수행자의 덕목을 갖춘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산 스님은 "10여 년 전 미얀마 파욱 수행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함께 수행하는 후배가 아잔 브람 스님의 존재를 소개시켜 주었죠. 그길로 무작정 스님을 찾아 갔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며 "그 이후 2012년 동국대서 1주일 동안 '세계명상힐링캠프'를, 2014년 만해마을 '세계명상캠프'에 이어 2016년 강원랜드서 '세계명상대전', 2018년도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 등 메머드급 명상 대회에 초청을 받아 4번 방한하셨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책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루 1분 마음 습관들이기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가르침이다. 단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한 '내려놓기' '비움'이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책은 하루 1분씩 1년동안 매일 반복적으로 마음챙김 훈련을 하면 '비우고' '내려놓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큰 진리를 선물한다.

마음방역사전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몸에 지참하고 다니다 꺼내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힐링을 주는 값진 선물이 될 것 같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인생이 정말 쉽게 흘러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잊어 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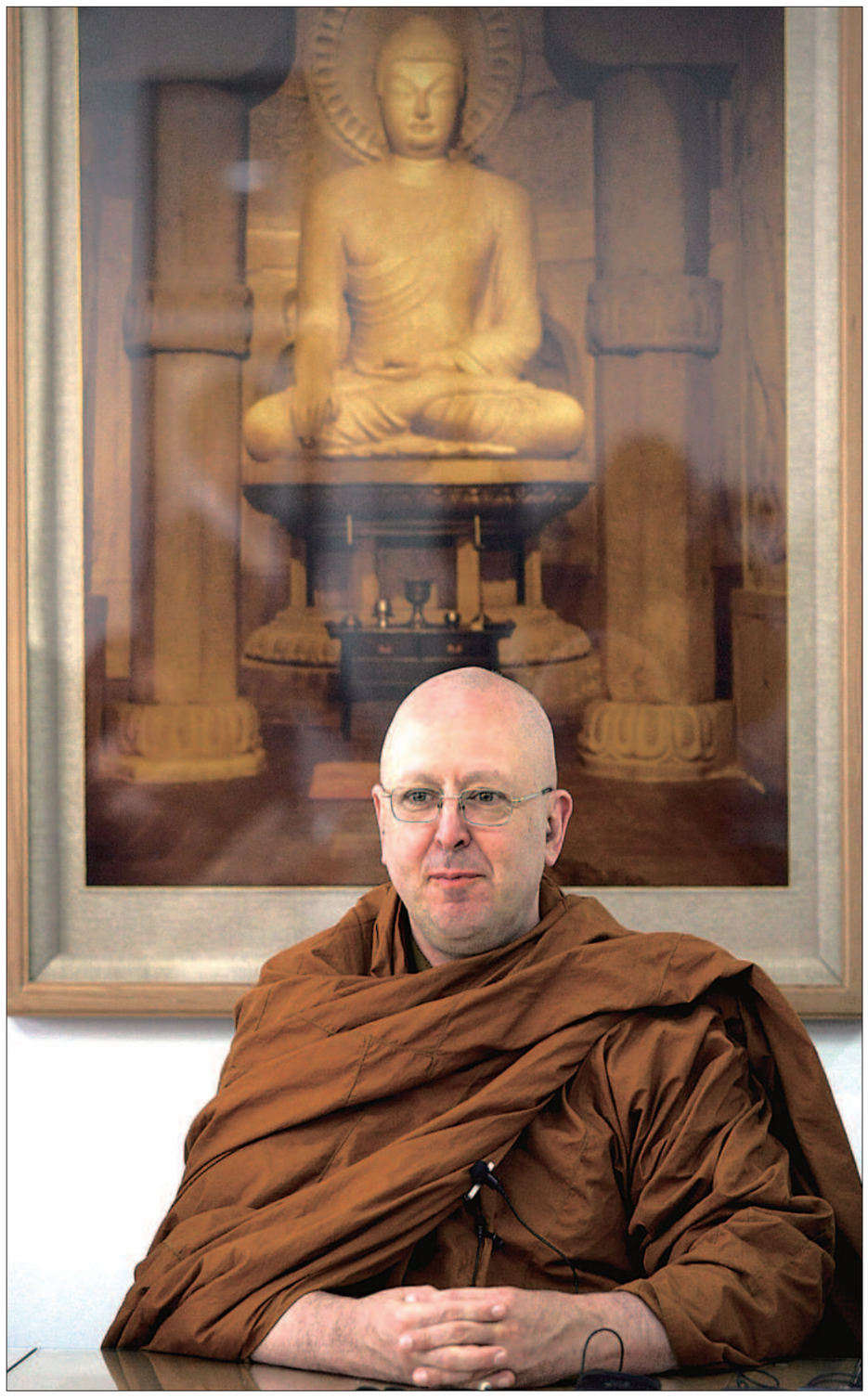
"명상에서는 신중한 인내심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서히 내려놓게 되면, 행복은 서서히 증가합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인생은 무겁지 않습니다."

아잔브람 스님의 365일 행복명상록
각산 스님, 6개월간 꼼꼼히 감수해
"깨달음의 언어는 대중 힐링시켜줘"
1년 내내 마음 충전 내용 가득 구성



아잔 브람 스님은 케임브리지 대학서 이론 물리학 학위를 받았고, 23세에 방콕서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태국 수도원서 고승인 아잔 차 밑에서 9년간 수행을 마치고 호주 퍼스로 건너가 남반구 최초의 사찰을 세웠다.

▲저자 **아잔 브람** 스님은?

1951년 영국 런던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대학서 이론물리학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학자 생활에 환멸을 느낀 후 아잔 차를 스승으로 모시며 태국 정글서 승려가 되는 수련을 쌓았다. 30년 넘게 승려 생활을 이어온 아잔 브람 스님은 남반구서 가장 큰 사원 중 하나인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서펜타인에 있는 보디니야나 수도원 원장이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또한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불교도 협회 종교 이사,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 불교 회관의 고문 및 인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아잔 브람 스님은 마음을 끄는 위트와 지혜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자신의 저서들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려놓았고 그가 강연 여행을 할 때마다 세계 각국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저서로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성난 물소 놓아주기〉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 〈놓아버리기〉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우리가 바라는 것, 삶이 줄 수 없는 것〉 〈슬프고 웃긴 사진관〉 등이 있다.

▲감수자 **각산 스님**은?

1960년에 태어났다. 저명한 명상대가로, 한국명상총협회 협회장,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장, DMZ 세계평화명상 조직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참불선원장이다. 세계명상의 풍부한 수행경험과 탁월한 지도로 불교명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명상 포교'의 획기적 기치를 한국불교 · 명상계에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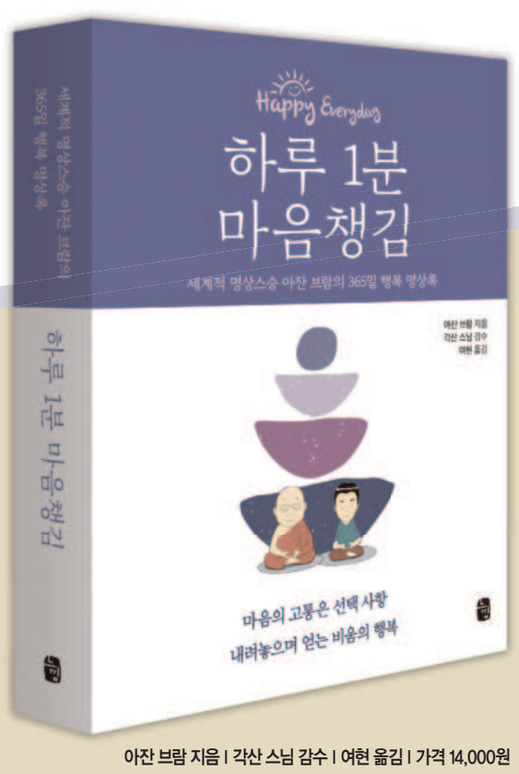
세계 명상수행승으로서 쌓아온 국제적 명상 네트워크로, 한국 초유의 세계적 규모의 컨벤션 국제명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해인사 보광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 강원에서 불교학을 수학한 후, 미얀마 고승 파욱 사야도와 세계적 명상스승 아잔 브람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태국 · 미얀마의 밀림과 세계 도처의 국제명상센터, 송광사 · 범어사 · 통도사 등에서 20여 년 동안 수행하고 견문을 넓혔다. 참선 명상강의 시청률 1위, 불교방송 BBS TV 강의 다시보기 1위 등, 명상강의 돌풍을 일으킨 명강사 선승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명상입문서 멈춤의 여행〉 역서와 편저로 아잔 브람의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 〈성난 물소 놓아주기〉 〈슬프고 웃긴 사진관〉 등이 있고,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출간을 준비 중이다.

▲역자 **여현**은?

본명은 김미옥. 경북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턴 버지니아 주립대학서 영어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현재는 참불선원 문화학술담당과 명상지도사로서 입승 소임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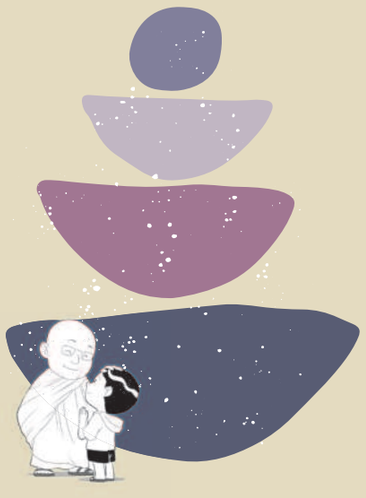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여는 책
마음의 고통은 선택 사항, 내려놓으며 얻는 비움의 행복



아잔 브람 지음 | 각산 스님 감수 | 여현 옮김 | 가격 14,000원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세계적 명상스승
아잔 브람 스님이 전하는 365일 행복 명상록

스트레스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울 때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불안할 때, 그냥 마음 편히 지내세요.
자신을 운전자가 아닌 승객으로 생각하고
삶의 여행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냥 지켜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도서문의 ddyj513@naver.com 느낌

불교 콘텐츠 강화…새로워지는 國搏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 2점 브랜드화
전용 공간 마련 상설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어떻게 바뀌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이 불교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이 같은 변화는 2월 3일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신년 기자간담회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민병찬 관장은 국보 제78 ·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2점의 전용 전시 공간 조성을 올해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한자리서 만나는 반가사유상

민 관장은 국보 제78 ·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문화재를 대표하는 문화재라고 꼽았다.

민 관장은 "현전하는 반가사유상 70여 점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게 한국과 일본에 있는 4점이다. 그중 3점을 우리 선조가 조성했다"면서 "반가사유상의 기원은 중국에 있지만, 문화 · 역사 · 신앙적으로 한반도에서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외국 박물관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반가사유상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민 관장의 말처럼 실제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재로 손꼽힌다.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은 7회, 제83호 반가사유상은 9회 국외 전시가 이뤄진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 있지만, 외진 곳에 있어서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반가사유상의 전시 공간을 2층 기증관 입구로 이동해 오는 10월까지 약 440㎡ 규모의 전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반가사유상을 '국립박물관 브랜드 문화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민 관장은 "올 10월부터 관람객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2점의 반가사유상을 마주하며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움직이는 괘불 · 승장 조명

국립중앙박물관에 선보이는 불교문화 콘텐츠 중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월부터 공개된 초대형 미디어 아트 괘불탱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의 괘불 전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괘불탱 미디어 아트는 실제 괘불이 소개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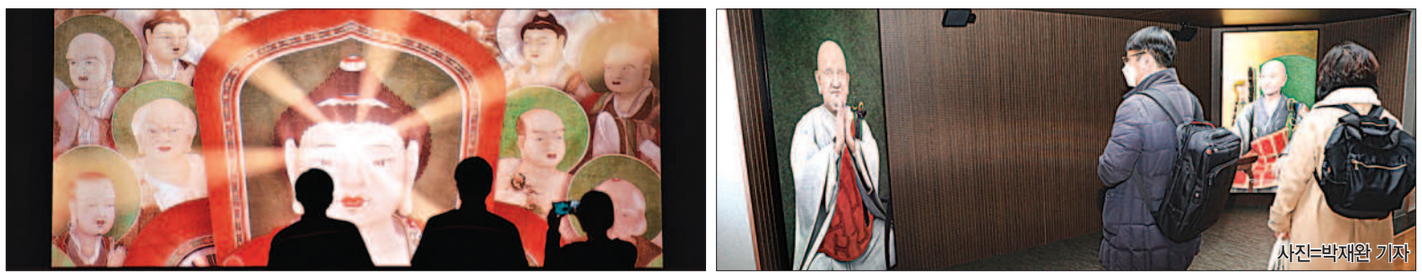
기존 불교회화실 휴게공간에는 실제 과거에 존재했던 고승과 현재 관람객이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실시간 인식 센서로 관람객이 다가오면 화면 속 고승 진영이 반응하며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고, 영상 속 고승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진다.

고승 진영 영상은 서산대사 휴정과 불화승 신겸 스님의 진영 2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계획 중인 특별전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한국 불교회화, 조각 등을 주도했던 승려 장인, '승장(僧匠)'들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올해 12월 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승려 장인을 주제로 국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소된 사찰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많은 불화승, 조각승들이 역사에 기록을 남겼지만, 이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작품 뒤에 봉인돼 잊혔던 당시 승장 그룹들을 조명해 조선시대 불교미술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교조각과 회화에는 집중하지만 조각승이나 불화승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면서 "불교 예술이 탄생하는 사찰 공간에 대해 문화사적 관점으로 살펴 조선시대 불교미술을 폭넓게 이해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회화실에 새로 마련된 불교 콘텐츠. 사진 왼쪽은 3층서 바라본 미디어 아트 괘불탱, 사진 오른쪽은 고승 진영 영상.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괘불 초대형 미디어아트
연말 僧匠 특별전 '기대'

한문 불전 전문가 되고 싶다면…

동국대 불교한문아카데미 1학기 연수생 모집

대면 · 비대면접수 전형 가능
심화 · 기본과정… 19일까지

불교 한문불전 역경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동국대 불교한문아카데미가 1학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 불교한문아카데미는 "오는 2월 19일까지 2021년도 1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접전형과 필기고사(심화과정)는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형일은 2월 20일이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는 지난 2012년부터 조계종 교육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불교한문 교육기관으로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번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매학기 15주 동안 강좌를 진행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과목씩 5강좌가 운영되며 10강좌(30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일반수강생은 기본과정에 한하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원서를 제출하면 등록과 개별 수강이 가능하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원은 각각 30명과 15명이다.

이번 학기부터 심화과정은 필기시험 과목이 〈대승기신론〉 〈현정론〉 〈도서〉에서 규봉 종밀의 〈원각경대소석의초〉 권 제1로 바뀌었다. 출제위원들은 "응시자마다 다른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라며 "심화과정 입학을 원하는 응시자라면 사전에 심도 있는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한문 전문가를 양성하는 만큼 불교한문아카데미 수강시 특전도 있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수강료가 면제되며,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성적우수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신성민 기자

'대각교 의식'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3일 등록 고시

불교 근대 유산인 '대각교 의식'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일제강점기 불교 관련 서적인 '대각교 의식(大覺敎儀式)'은 문화재로 등록하고, 한국어 수어교재 〈수화〉와 '고성 구간성기선점 반석', '연세대 언더우드가기념관'은 문화재로 등록예고한다"고 2월 3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제803호로 지정된 '대각교 의식'은 3 · 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백용성(白龍城, 1864~1940) 스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를 창립하고 저술한 서적이다.

'대각교 의식'은 일제강점기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복잡한 각종 의식(예불 · 향례 · 혼례 · 상례 등)을 실용적으로 간소화하고, 왕생가 · 권세가 등 찬불가 7편을 수록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대각교 의식'

문화재청은 "'대각교 의식'은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해 일제강점기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을 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한 점에서 역사 ·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문서번호 (2021-01-18)

공 고

(분환신청 / 승려증갱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 원효종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 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2017카합10083대한불교원효종종정직무대행, 2019비합3003,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결정, 대구고등법원2020라388임시종정선임결정), 2021년 1월 12일자로 이종윤(원호)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들의 위촉, 임명 또는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다 음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1월 ~ 4월** (※공고일 부터 3개월)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흙·녹 제거하니 금빛 미남보살 자태가…

국립문화재硏,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 완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15년 10월 양양 선림원지 발굴장에서 통일신라 추정 금동보살입상이 출토됐다. 대좌를 포함해 50cm에 달하는 대형 금동보살입상은 그 형태가 온전하고 출토지가 확인되는 불상 중 가장 컸다. 화려하게 조각한 대좌와 광배도 그대로 남아있어 출토 당시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있던 만큼 금동보살입상 표면에는 흙과 청동녹이 뒤엉켜 붙어 있었고, 오른쪽 발목은 부러져 대좌(臺座)와 분리돼 있었다. 광배는 여러 조각으로 파손돼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는 발굴조사를 수행한 (재)한빛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금동보살입상을 긴급 인수해 보존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5년 후, 보존처리가 완료된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의 자태가 공개됐다. 보살상 표면에 엉켜있던 흙과 녹은 말끔히 제거돼 본래 금빛과 형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녹에 가려져 있던 수염과 눈의 먹선도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강원도 양양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 금동보살입상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2월 4일 발표하고 그 모습을 일반에 공개했다.

금동보살입상을 인수 받은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금동보살입상의 정밀한 보존상태 파악을 위해 X-선 투과 조사·내시경 조사·재질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녹 제거, 강화처리, 접합 복원 등 보존처리를 했다.

5년간 보존 처리 작업 진행
출토시 뒤엉킨 흙·녹 제거
눈, 수염 선명 먹선 드러나
금빛·본래 형태를 되살려
제작 연대 7~9세기 확인돼

조사결과, 금동보살입상은 구리합금으로 형태를 만들고 표면을 도금한 금동재질이었고, 그 위에는 초록색의 청동녹이 덮여 있었다.

본래 색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며 녹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을 해야 했다. 이 같은 지난한 작업을 통해 금동보살입상은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됐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도금층은 선명하게 드러났고, 도금층 위에 섬세하게 그려진 먹선도 찾을 수 있었다"면서 "먹으로 그린 부분은 눈썹, 눈(눈매·눈동자), 수염, 대좌의 투각된 안상 테두리 등 모두 4곳에서 확인됐다. 특히, 현미경 확대 관찰을 통해 청동녹 아래에 먹으로 그려진 눈동자까지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 조사를 통해 금동보살입상의 제작 연대를 확인한 것도 큰 성과다. 출토 당시 명문 조각은 발견되지 못했고, 내부와 표면에서 종이조각과 금박 종이조각만이 확인됐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종이를 섬유 분석해 모두 닥나무 인피섬유의 닥종이로 확인했고,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7~9세기의 절대연대 자료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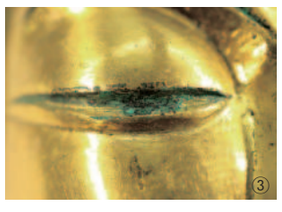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804년(애장왕 5년) 동종이 제작되는 등 선림원이 활발히 경영되던 시기를 고려할 때, 금동보살입상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작 기법도 확인됐다. X-선 투과조사 결과, 금동보살입상은 하나의 개체로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쪽 팔 뒤에서 주조구멍(molding hole) 흔적이 확인됐다. 이 주조구멍은 주물이 완성된 이후에 금속판으로 구멍을 막고 도금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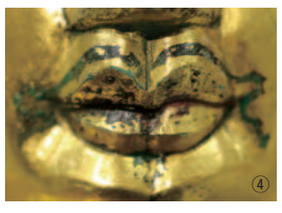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현재 보존처리가 완료된 금동보살입상의 부러진 오른쪽 발목은 아쉽게도 대좌와 접합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올해 3D 스캔 데이터와 3D 프린트 등 첨단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복원으로 금동보살입상을 대좌에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③



④



②

① 출토 당시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모습.
② 보존처리를 마친 금동보살입상 전체 구성 모습. 본래의 금빛과 형태가 완벽하게 복원 됐다.
③ 보존처리 과정서 확인된 오른쪽 눈동자 먹선.
④ 녹과 흙을 제거하니 먹으로 그린 수염도 확인됐다.

불교학 국제학술지 IJBTC 30권 2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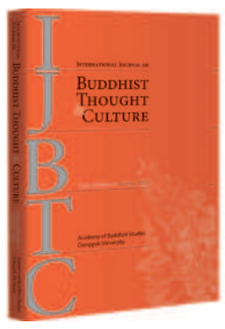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서… '다라니와 진언' 특집

국내 첫 불교학 전문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 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 30권 2호가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국제 영문 저널 IJBTC 30권 2호를 최근 발행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IJBTC(공동편집장 동국대 김종욱, 브링엄영대 리차드 맥브라이드)는 인도, 미국, 태국, 대만,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몽골 등 8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영문 발행 불교학 전문학술지로 연2회(6월, 12월) 발간된다.

IJBTC Vol.30, No.2의 특집 주제는 '다라니와 진언의 의례, 예술 그리고 문헌'으로 △Arhaṃ과 Arhraṃ 중 깨달은 영혼을 위한 자이나 만트라는 무엇인가(엘렌 고우, 미국 에모리대) △ 건축 공간에 구현된 의례: 요(遼)의 불전존승다라니와 응현목탑(김연미, 이화여대) △캄보디아의 불전존승다라니: 의례와 신화(올리비에 드 베농, 프랑스 국립국동연구소) △ 불전존승다라니: 네팔 사본에 기초한 산스크리트 문헌의 완성(게르겔 히다스, 영국 대영박물관) △ 증오의 연대 끊기: 돈황 다라니 문헌들(임레 갈람보, 영국 캠브리지대) 총 5편의 특집 논문이 수록됐다. 이들 논문은 그동안 신앙과 문화재로서만 취급됐던 다라니를 철학적이고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집논문 외에도 일반 연구논문으로 니콜라스 존스 미국 앨라배마주립대 교수의 '빠알리 불교의 관대한 행위와 존중에 대한 고찰' 등의 논문들과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한 2편의 서평도 함께 게재됐다.

한편, IJBTC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등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불교학의 학제적 연구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8년에는 톰슨로이터사의 새 데이터베이스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와 미국신학도서관협회의 아틀라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Atla DB)에도 색인 등재 선정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제4회 성운학술상 논문 공모

2월 28일까지… 염불신앙 관련 주제

한국불교의 염불신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제정된 제4회 성운학술상 논문을 모집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제4회 성운학술상을 공모한다. 논문 마감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공모 논문 주제는 '경전 상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과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0만원(1명), 우수상 300만원(1명), 장려상 100만원(2명)의 연구비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5월 14일에 열릴 예정인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성운학술상은 제22대 회장 성운 스님의 지원에 따라 한국불교의 염불신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고 그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춘계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논문 주제는 불교 전반에 대해 응모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응모자는 자유주제 공모발표의 논문계획서는 2월 21일까지 hanbulhak@daum.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출강 및 통신 2021학년도 30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0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



▶ 7회 예고
카피다르마는 왕자 수시마를 이발한다. 수시마는 첫째왕비에게 다르마의 인품을 이야기한다. 첫째왕비는 빈두사라왕에게 다르마를 추천한다. 마침내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을 만난다. 왕의 눈에 든 다르마는 왕비가 되어 별궁에서 산다.

다르마 이발사…마침내 가위 잡다

빵갈로바뜨사는 열다섯 번째 왕비가 머무는 별궁으로 갔다. 서둘러 잰걸음으로 걸어간 탓에 숨이 찼다. 평소에는 호흡하듯 천천히 걷곤 했던 그였으므로 드문 일이었다. 별궁 정원지기 궁녀가 빵갈로바뜨사를 보고는 합장했다. 정원지기 궁녀는 막내왕비가 좋아하는 꽃을 구해서 심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시간이 남으면 궁중정원으로 나가 다른 궁녀들과 함께 호미를 들고 잡초 뽑기 울력을 했다.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못했다. 정원지기 궁녀가 말했다.

"왕비님은 안 계십니다."

"대왕님을 뵈러 갔소?"

"아닙니다. 지금 후원에 계십니다."

"후원에서 누구를 만나고 계시오?"

"혼자 계십니다."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봐야겠소."

정원지기 궁녀가 빵갈로바뜨사 앞으로 나서며 말렸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왕비님을 꼭 봬야 하니 그렇소."

"구루시여. 용서하십시오."

정원지기 궁녀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왕자들을 가르치는 빵갈로바뜨사의 발걸음을 막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잠시후 빵갈로바뜨사는 자신이 다르마의 일로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호흡을 조절하며 평상심을 되찾았다. 입안이 곧 평소처럼 촉촉해졌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 입안의 침도 바짝 말랐던 것이다. 정원지기 궁녀가 말했다.

"왕비님은 종잡을 수 없답니다. 울다가 웃다가 느닷없이 화를 내니까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소."

"한때는 대왕님께서 자주 별궁에 오셨는데 요즘은 뜸합니다. 그래서 우리 궁녀들을 못살게 구는 것 같아요."

"대왕님을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이지요."

열다섯 번째 왕비가 빈두사라왕을 독차지하겠다는 소유욕은 강하고 집요했다. 별궁에 궁녀가 배속되면 미모부터 따졌다. 잘생긴 데다 나이까지 젊으면 별궁에서 쫓아냈다. 도망치다가 병사에게 붙잡혀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궁녀도 있었다.

평상심을 되찾은 빵갈로바뜨사는 다음날 찾아올까 하고 망설였다. 마음이 괴롭고 심란한 왕비에게 다르마를 위해 부탁한들 들어줄 리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원지기 궁녀가 빵갈로바뜨사 앞을 휙 달려갔다. 왕비가 후원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정원지기 궁녀가 왕비에게 말했다.

"왕비님, 구루께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구루시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왕비님, 청이 하나 있어 왔사옵니다."

"혹시 다르마를 위한 일이 아니오?"

"맞습니다. 왕비님께서 다르마를 이발소로 보낸 까닭은 이발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데, 다르마는 비질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이발사가 왕비님의 지시를 잘못 이행하고 있으니 시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호호. 구루시여,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오?"

"급한 일은 아닐지 모르오나 대왕님께서 아시면 왕비님께 누가 될 줄 아옵니다."

"어째서 그렇소?"

"대왕님께서 다르마를 왕비로 점지한다는 허락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옵니다. 대왕님께서 다르마가 비질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실망할 것이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대왕님은 이발사를 불러 이발을 한다오. 이발소를 가지 않으니 언제 다르마를 보겠소?"

"다르마가 이발소에서 비질한다는 소문은 벌써 궁 안에 돌고 있사옵니다."

"그게 사실이오?"

왕비가 멈칫 놀라는 얼굴을 했다. 빵갈로바뜨사는 왕비가 놀라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왕비님께서 이발사를 불러 시정한다면 아마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옵니다."

"좋은 일이란 무엇이오?"

"대왕님을 위해 왕비님께서 다르마에게 이발을 배우게 했다고 하면 칭찬하시지 않겠사옵니까?"

"구루시여,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소?"

"아마도 대왕님께서 왕비님을 부르시거나 별궁으로 오실 것이옵니다."

왕비는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빈두사라왕이 곧 별궁에 오기라도 할 것처럼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다.

"지금 이발사를 불러 오너라."

정원지기 궁녀가 사라지고 나자 왕비가 빵갈로바뜨사에게 말했다.

"구루시여, 이발사를 불러 혼내줄 것이니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왕비님, 돌아가서 왕비님을 위해 기도하겠사옵니다."

빵갈로바뜨사는 자신의 염력이 통했다고 생각했다. 후원에서 오는 왕비를 보는 순간 짧고 강하게 '왕비님은 내 청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빵갈로바뜨사는 사원으로 돌아와 자신의 기도처인 반얀나무 고목 밑으로 걸어갔다. '빠빠왕비' 라고 비웃음을 받는 왕비이지만 다르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왕비가 자비심을 갖도록 기도했다. 바람이 불어오자 반얀나무 이파리들이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오랜만에 나타난 빵갈로바뜨사를 발견한 아지비까교 수행자들이 숲속에서 나와 반얀나무 주위로 둥글게 앉았다.

늙은 수행자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염주를 돌렸다. 그의 맨발바닥이 악어가죽 슬리퍼를 신은 것처럼 우둘투둘했다. 젊은 수행자 두 사람이 빵갈라바뜨사에게 화톳불 공양을 올렸다.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오더니 반얀나무 낙엽을 모아 얹고는 불을 지폈다. 푸른 연기가 풀풀 반얀나무를 감싸며 오르다가 허공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밤에 락슈미띳사가 다르마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찾아왔다. 락슈미띳사는 활짝 웃고 있었다. 다르마에게 희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왕비님, 내일까지 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이제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마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어?"

"낮에 정원지기 궁녀 언니가 이발사를 만났어요."

"왕비님이 밖에서 전단향나무 뿌리를 돌절구에 넣고 찧을 때 왔다가 갔어요."

다르마는 낮에 쇠공이로 절구질을 했다. 이발하는 손님이 없자 이발사 여인이 시켰다. 절구질은 도맡아서 하는 수드라 여인이 있었지만 다르마에게 심술을 부렸다. 전단향나무 뿌리를 가루로 만드는 데는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다. 돌절구 속에 마른 전단향나무 뿌리를 넣고 수백 번 쇠공이로 짓찧으면 가루가 되었다. 그 가루를 체에 넣고 거르면 전단향나무 향기가 나는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궁녀 언니가 이발사 언니에게 말했어요. 빠빠왕비님 지시라면서요. 이제부터는 왕비님에게 허드렛일을 시키지 말고 바로 이발 기술을 가르치라고요."

"그래?"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빠빠왕비님을 찾아가 항의했을 거예요. 빠빠왕비님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대왕님과 구루뿐일 테니까요."

"나 때문에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고생하시는구나."

락슈미띳사가 품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껍질이 노란 망고 두 개였다.

"궁녀 언니가 가져온 것을 제가 슬쩍 챙겼어요. 수드라 언니들은 바나나보다 망고를 좋아하거든요. 챙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어져버리죠."

"락슈미띳사, 고마워. 우리 한 개씩 나눠먹자."

"아니예요. 저는 낮에 한 개 먹었어요."

달빛이 손바닥만 한 창으로 흘러들어와 락슈미띳사의 얼굴에 비쳤다. 귀엽고 똑똑한 수드라 소녀였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이 마주친 생쥐의 눈처럼 반짝거렸다. 락슈미띳사는 수드라 언니들이 찾을지 모른다며 서둘러 나갔다. 다르마는 누워서 가만히 합장했다. 날마다 고단하고 울적하지만 락슈미띳사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보름달이 창 너머에서 미소를 보내는 듯했다.

'아, 내가 빠딸리뿌뜨라 성에 오던 날 밤에도 보름달이 떴었지.'

다음날.

다르마는 이발소 수드라 여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락슈미띳사의 말대로 분위기가 부드럽게 바뀌어져 있었다. 수드라 여인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락슈미띳사는 시치미를 뗀 채 수건을 빨고만 있었다. 이윽고 이발사 여인이 다르마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잡일은 하지 마세요. 이발 기술을 가르쳐주겠으니 내 옆에 있어야 해요."

"고마워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발 기술을 배울 자격이 생긴 거죠."

이발사 여인의 말투도 어제와 달랐다. '빠빠왕비' 의 지시가 그녀에게 떨어졌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왕비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왕비가 왓찌국 시골마을을 지나다가 굶어 죽어가는 그녀 가족에게 망고와 빵을 던져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발사였던 그녀 아버지가 병사하자 가족이 구걸하며 떠돌다가 그런 모습으로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왕비는 그녀에게 암바니가마라고 불렀다. 암바는 망고, 니가마는 시골이라는 뜻이 있었다.

다르마는 암바니가마에게 칭찬을 듣기도 했다.

"가위질을 제법 하네요. 손재주를 타고 난 것 같아요."

"집에 손님들이 올 때 화병에 꽃꽂이 한 일밖에 없어요."

"손재주가 없으면 가르쳐줘도 절대로 가위질을 못하거든요."

그러나 암바니가마의 호의는 거기까지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 같은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다르마를 견제하는 눈빛이었다. 다르마는 그런 기색을 느끼고는 조심하곤 했다. 락슈미띳사는 암바니가마가 '빠빠왕비' 를 만났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전해주었다. 빈두사라왕의 머리를 만지고 온 암바니가마는 반드시 '빠빠왕비' 를 만났다. 왕비에게 왕의 근황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빈두사라왕은 이발할 때가 되면 암바니가마를 궁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그러니 암바니가마는 빈두사라왕의 동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았고, 그 첩보를 왕비에게 낱낱이 전해주었던 것이다. '빠빠왕비' 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왕이 다른 왕비들의 별궁에 드나든다는 소식이었다.

"왕비님, 오늘은 첫째왕비님의 아들인 수시마 왕자님을 보러 가셨답니다."

"수시마 얘기를 왜 꺼내는가!"

"왕비님도 왕자를 낳으시면 되지 않사옵니까?"

"수시마 말만 들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대왕님께서는 요즘 어느 별궁에 자주 드시는가?"

"왕자님을 가장 많이 출산한 왕비님 별궁인 것 같사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빠빠왕비' 의 불행은 왕자를 갖지 못한 데에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빠빠왕비' 가 왕자를 잉태하지 못하자 다른 왕비와 후궁들에게 발길을 돌려버렸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수십 명의 왕자가 필요했다. 마우리아왕국을 통치하려면 정복한 소국들을 많은 왕자들이 다스려야 했으므로 그랬다. 빈두사라왕은 왕자들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왕자를 뽑아 자신을 대신하는 부왕(副王)으로 삼으려고 했다. 〈계속〉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❸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와 선



▶ 한줄 요약
단박에 깨달음, 부처님 당시부터 유래

부처님 가르침에 맞닿은 '돈오'

지금 인터넷에는 남방 위빠사나 수행자와 대승과 간화선 수행자들 사이에 불꽃 티는 논쟁과 격렬한 비난이 있다.

'禪' 이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처님 말씀인 경전에 근거가 없다" 라거나 "언어도단과 불립문자를 표방하니 불교의 근본 교리를 무시하고 부정한다"는 비판이다.

남방에서 전승된 팔리어 초기경전 〈니까야〉를 '초기불교' 라 믿고 부처님 원음으로까지 신수봉행하는 입장에서는 대승과 간화선은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에 나오지 않으니 부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방대한 말씀을 후대에 뛰어난 제자들이 수행하여 깨치고 새롭게 해석하고 결집하여 대승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남방 상좌부 전통을 소승이라 비판해온 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오랫동안 남방에만 전승되어 오던 팔리어로 된 〈니까야〉(한문역 아함경)가 한글로 보급되면서 이 문제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불교계에 이러한 혼란과 시비를 제대로 판별하고 결집하여 바른 수행 지침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논리와 주장만 있다. 이제 한국불교는 이것을 극복하고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그리고 선어록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하여 바른 수행 지침을 제공할 때가 되었다.

이런 입장에서 팔리어 〈니까야〉 초기경전의 〈초전법륜경〉은 대단히 중요하다. '초기불교' 를 주장하는 분이나 위빠사나 수행자, 나아가 대승 교학과 선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근본 경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초전법륜 자리에 선 다메크대탑.

〈초전법륜경〉 '중도대선언' 가치와 의미

부처님은 깨친 뒤 첫 설법에서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하셨으니 이것이 중도대선언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치니 생과 사의 윤회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와 행복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의 인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짐승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지병에 걸리면 병고에 시달리고 죽거나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근본 문제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로병사와 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해탈하는 중도의 길을 제시한다. 이것은 생사 고해를 해탈하는 길이니 "불사(不死)의 문을 열었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친 중도를 알려주기 위해 다섯 수행자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녹야원에서 만나 이 중도대선언을 하셨다. 이 초전법륜은 일방적인 선언이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듣는 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문답하는 대기 설법이 원칙인데, 이 초전법륜은 그러지 않고 부처님이 당신은 중도를 깨달아 생사 문제를 해결했노라 선언한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중도를 누구든지 깨치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를 누린다고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이 첫 설법이다. 그러니 부처님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중도 깨치고 금수저서 무수저 삶 살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으니 금수저 중의 금수저이시다. 그러나 아무리 금수저라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어쩔 도리가 없다.

지금도 그렇다. 부자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생사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부처님도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생사 문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출가하여 수도하다가 중도를 깨달아 생사 고해에서 벗어났다. 생사 문제를 해결한 부처님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평생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 이것은 금수저가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의 삶을 선택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어째서 금수저의 길을 버리고 무수저의 삶을 사셨을까?

부처님은 중도를 깨치면, 중도의 길을 가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처럼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당시의 인도는 극단적인 카스트계급사회로 태어날 때의 신분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부처님은 이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부정하고, 대안으로 평등하고 행복한 삶의 길을 몸소 개척하신 것이다. 즉,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진 것 없이 걸식을 해도 영원한 평안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禪에 대한 정법 비판 반박
꼰단냐 깨달음, 돈오 사례
'선'으로 가르침 전승 의미
전법인가 전통서도 엿보여

부처님 깨달음, 중도는 인간완성의 길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아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신 중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중도는 어두운 어리석음에서 밝은 지혜를 열어 주고 영원한 평안과 행복으로 안내한다. 누구든지 중도를 공부하여 깨치면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며 생사 윤회를 영원히 해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종교 역사에서 불교와 같은 종교는 없다. 다른 종교는 영원한 행복이나 구원을 인간이 아닌 하늘이나 신 등 절대자에게 구한다. 인간은 절대자의 피조물이나 분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종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은 인간이 중도를 깨치면 스스로 생사를 해탈한 절대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부처님이 깨치고 설한 중도는 인간 완성의 길이고, 인간이 곧 신과 하늘같은 절대자가 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참 위대한 분이었고, 대단한 분이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사셨으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가져다 준다.

꼰단냐의 돈오와 선

부처님이 중도대선언을 하자, 첫 설법을 듣고 있던 다섯 수행자는 어리둥절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부처님은 중도가 곧 팔정도이며, 인간의 괴로움과 괴로움을 만드는 집착과 사라지게 하는 길인 사성제로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한다.

이 첫 설법을 듣자마자 꼰단냐(한역, 교진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든 사라지는 법이다" (集法卽滅法)하며 그 자리에서 깨쳤다. 그때 부처님은 "오,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하며 깨달음을 인정하고 "안냐시(완전한 앎을 얻은) 꼰단냐"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자 안냐시 꼰단냐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자가 되게 해달라 청한다. 이렇게 하여 꼰단냐를 비롯한 다섯 수행자가 모두 깨치고 부처님 제자가 되자, 부처님은 이렇게 설한다.

"여기 여섯 아라한이 있구나!"

이것이 부처님이 깨친 뒤 첫 설법이고 불교 역사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치고 생사 고해에서 해탈한 뒤 세속의 계급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대안의 평등한 수행 공동체(승가)를 만들고 중도법이 영원히 전승되게 하셨다.

부처님 이후 가장 먼저 깨친 이가 꼰단냐 등 오비구이다. 이 〈초전법륜경〉의 기록으로 보건데 꼰단냐는 부처님 법문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것이 禪에서 말하는 말끝에 바로 깨치는 '언하대오(言下大悟)' 이고, 단박 깨치는 돈오(頓悟)다. 가장 먼저 깨친 부처님이 두 번째로 깨친 꼰단냐의 깨달음을 인정하고, 법명을 지어주는 선의 전법 인가의 전통이 부처님 당시에서 기원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남방 팔리어 〈니까야〉의 〈초전법륜경〉에서 선의 근거와 특색이 그대로 확인된다.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중도를 깨달아 생사를 단박에 해탈하는 확철대오,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돈오한 꼰단냐, 꼰단냐의 깨달음을 전법 인가하는 부처님, 부처님과 오비구가 함께 여섯 아라한으로 세속사회의 대안으로 평등한 수행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다.

禪, 초기경전 부처님 가르침 전승하다

21세기 들어 남방 팔리어 초기경전이 소개됨으로 오히려 禪의 기원과 전통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첫 설법에 근거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금 남방의 상좌부 승가에서 가르치는 "중생이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깨달음은 헤아릴 수 없는 생사 윤회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삼아승기겁 동안 닦아야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처님의 초기경전에서 너무나 멀어진 견해다.

근래 남방 상좌부 승가의 수행을 체험하고 온 어느 전문의가 책에 다섯 번의 전생과 후생을 관찰하는 수행을 말하는 것을 보았다. 〈초전법륜경〉과 같은 초기경전에는 부처님 법문을 듣자마자 깨친 수많은 기록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남방 상좌부 승가의 세세생생 닦아서 생사를 해탈한다는 가르침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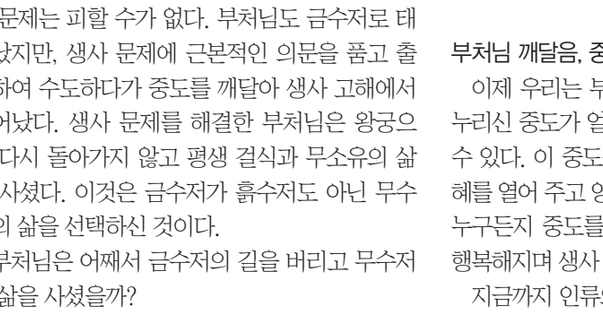
얼마 전 입적하신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은 "선이 불교의 정통인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꼰단냐의 돈오' 를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성철 스님도 〈백일법문〉에서 일관되게 선의 중도와 돈오 사상이야말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것으로 평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방의 팔리어 초기경전을 역경하여 소개한 불사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일찍이 성철 스님이 "남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팔리어와 산스크리트 경전을 연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늦게나마 개인의 원력으로 이러한 불사가 이루어진 것이 참으로 고맙다.

다음에는 초기경전 중 〈가전연경〉에 나오는 정견과 선에 대하여 살펴보자. 〈불교인재원 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3월 2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❸ 〈석보상절〉 속 훈민정음 대사전



▶ 한줄요약
〈석보상절〉 서문을 살펴봤다. 〈석보상절〉 서문에는 편찬 목적이 확인된다. 백성들이 불교를 더욱 깊이 알았으면 하는 세종의 애민과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발원이 담겼다.

장엄한 불교와 훈민정음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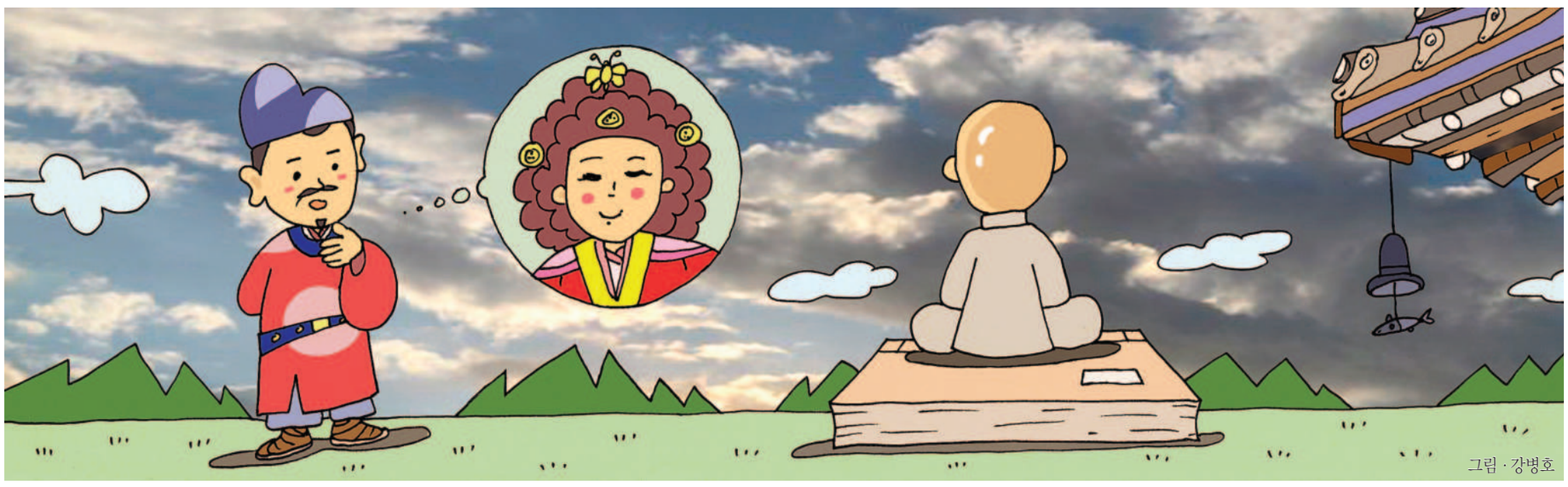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서〉의 사전적 풀이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시다.

지난 글에서 서문의 첫 문장을 읽어보았다. 이 〈석보상절 서〉에는 훈민정음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협주(夾註)'가 등장한다. 내가 처음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공부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먼저 '서(序)'라는 훈민정음 단어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가.

석보상절 서(釋譜詳節序)의 '序는 글 밍フ론 쁘들 子細히 써 後ㅅ 사ᄅᆞ물 알의 ᄒᆞ논 거시라'

'서는 책을 만드는 뜻을 자세히 써서 나중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누가 이보다 더 친절하고 쉽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석보상절 훈민정음 사전'의 위엄이다. 그 다음 첫 한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였다.

佛이 爲三界之尊ᄒᆞ샤

'佛은 부톄시니라 爲는 ᄃᆞ외야 겨실씨라 三界는 欲界 色界 無色界라 之는 입겨지라 尊은 노ᄑᆞ신 부니시니라 ᄒᆞ논 쁘디라'

불(佛)은 부처이시다. 위(爲)는 되어 계시는 것이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이다. 지(之)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그리하여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라는 유려한 21세기 현대 국어로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부처'이다. '부처님'이라고 쓰지 않았다. 당시 훈민정음을 표기는 '부텨'라고 썼다. 지금 우리가 'Buddha'를 '붓다'라고 표기하고 '붓다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산스크리트 원어에 가까운 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로는 '佛(불)'이다. 15세기에 지금보다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풀이한 '중생(衆生)'이란 말도 예사로 들리지만 세종 시대에 '중생'은 짐승을 뜻했다. 그 말의 의미가 넓어져 인간을 포함한 살아 있는 '유정(有情)'을 뜻하게 되었다. '유정'은 '무정(無情)'에 상대되는 말로, 중생이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총칭한다면 유정은 감정과 의식이 살아 있는 존재(sattva)를 의미한다. 무정은 산천초목같이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중생'은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나 진제(眞諦, 499~569) 삼장(三藏) 때 번역이고, 〈서유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현장 법사(602~664)가 '유정과 무정'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이처럼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글을 읽다 보면 그동안 전혀 생각지 않고 살던 모국어의 뿌리와 의미의 변화 등을 알게 되는 직관력이 증폭되어 가외로 즐겁다. 그러나 이렇게 사전적 정의인 협주를 풀이하다 보면 본문 내용이 저만치 가있어 그다음 본문과 연결이 어렵다. 언젠가 '석보상절 대사전' 출간을 발원하며 이제부터는 풀이를 본문에 녹여가며 석보상절 편찬의 동기를 읽어가기로 한다.

불교를 깊이 있게

世之學佛者ㅣ

()世間애 부텻 道理 ᄇᆡ호ᅀᆞᄫᆞ리

鮮有知出處始終ᄒᆞᄂᆞ니

()부텨 나아 ᄃᆞ니시며 ᄀᆞ마니 겨시던 처ᅀᅥᆷ ᄆᆞᄎᆞ물 알리 노니

雖欲知者ㅣ라도

()비록 알오져 ᄒᆞ리라도

亦不過八相而止ᄒᆞᄂᆞ니라

()또 八相을 넘디 아니ᄒᆞ야셔 마ᄂᆞ니라

세간의 부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가 (있어도)/부처 태어나 다니시며(활동) 가만히 계시던(임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이가 드무니/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또 팔상도에 나오는 그림을 넘지 못하고 마느니라.

이제 〈석보상절〉을 쓰게 된 본론이 나온다. 때는 1447년이다. 기억을 더듬어보자. 학창 시절 열심히 외운 실력, 훈민정음이 언제 만들어지고 반포되었는지를…. 1443년 세종 즉위 25년에 문자를 만들고 시험 삼아 1445년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1446년 9월 상한(上澣) 곧 양력으로 10월 9일쯤 반포하였으니, 우리는 그날을 지금 '한글날'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훈민정음으로 쓴 첫 번째 산문책,

"부처님 가르침 구하는 사람도 팔상도만 이해" 서문서 지적해

월인석보 · 석보상절 읽다보면

신미대사 · 김수온 채취 느껴져

1447년 음력 7월에 무려 24권짜리 방대한 〈석보상절〉의 그 서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 반포 후 채 1년도 못 되어 완성한 24권짜리 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개월 만에 24권짜리 전집을 완성한다는 것이 대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다빈치 코드'이다.

두 번째 '다빈치 코드'는 조선이라는 세상에서 훌륭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가 태어나서 살아가며 열반에 드실 때까지 상세히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구절이다.

원문 '알리노니'는 15세기 국어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옛말이다. 처음 이 글을 독학으로 읽었을 때 훈민정음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알리노니'로 붙여서 읽었다. 부처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석보상절로 '알리노니'라는 뜻인 줄 알았다. 우리는 여기서 잊혀져 가는 '드물어서 귀하다'라는 뜻의 정말 귀한 '놀다'라는 우리말을 새롭게 만난다. 모국어의 능력이 증폭되는 즐거운 〈석보상절〉 독서. 비록 부처의 가르침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겨우 '팔상도'에 그려진 여덟 가지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소헌왕후의 극락왕생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바로 조선시대이다. 불교가 국교였던 통일신라나 고려시대가 아니다. 조선은 '유교(儒敎)'를 국시로 삼고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펼쳤다고 귀가 따갑게 듣지 않았던가. 심지어 세종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교종과 아홉 산문에 자리 잡았던 선종, 5교 9산을 혁파하고 선교 양종으로 불교를 대폭 축소시킨 주인공이다. 그런 세종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세조가 왕자였던 수양대군 시절 〈석보상절〉을 짓고 서문을 쓰게 한 사실이 〈월인석보〉 서문에 자세하다.

세종께서 나(수양대군)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천(推薦, 세종의 왕비 소헌 왕후 극락왕생 기도)이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이것이 조선 왕실의 양면성이요, 진심을 담은 세종의 육성이다. 다음 구절은 수양대군의 목소리로 쓴 〈석보상절〉의 출간 목적이다.

頃에 因追薦ᄒᆞᅀᆞ바

近間애 追薦ᄒᆞᅀᆞᄫᆞ물 因ᄒᆞᅀᆞ바

爰采諸經ᄒᆞ야

이저긔 여러 經에 ᄀᆞᆯ히여내야

別爲一書ᄒᆞ야

各別히 ᄒᆞᆫ 그를 밍ᄀᆞ라

근래에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이때까지 (나온) 여러 경전에서 가려내어/ 각별히 한 책을 만들어

소헌왕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종의 부인이자 수양대군의 어머니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소헌왕후를 위하여 남편과 아들이 극락왕생을 비는 것이 어쩌면 이 책을 출간한 직접 이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든 기간은 1년이 채 안 됐지만 책을 얼렁뚱땅 만든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까지 유통되고 가장 많이 회자된 불교 경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 · 율 · 론' 삼장을 망라하여 엄선 또 엄선한 요체들을 모아서 '각별히' 만든 책이다.

〈월인석보〉 서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12부 수다라를 섭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12부 수다라는 12부경이라고도 하는 석가모니의 교설을 12가지로 분류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세종 또는 세조가? 물론 이 두 왕도 불교에 조예가 깊고 세상이 다 아는 박학다식한 천재들이다. 그러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정독을 하다보면 〈석보상절〉 뒤에는 김수온의 체취가 느껴지고 〈월인석보〉 뒤에는 신미 대사가 서 있는 모습이 느껴진다. 그것은 1462년 간경도감에서 '능엄경언해'를 만들 때 세조가 구결을 달고 김수온과 신미가 번역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 된다.

김수온은 신미 대사의 동생으로 1446년 '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석보상절〉보다 훨씬 자세하고 철학적인 〈월인석보〉에는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들인 왕자와 왕들이 스승으로 추앙해 신하들의 질시를 한 몸에 받았던 신미 대사의 자취가 남아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신미 대사에 대해서는 구전과 속리산 법주사와 복천암, 충북 영동 김씨 가문 등에 내려오는 일화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와 반대로 간사한 승려로 매도되고, 기록을 찾아서 삭제라도 한 듯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훈민정음과 그 문자로 지어진 〈월인석보〉의 세계!

〈석보상절〉의 서문 두어 구절만 읽었을 뿐인데 이렇게 도도하고 장엄한 불교와 훈민정음의 향연이 펼쳐진다. 과연 이번 생에 다시 없을 이 아름다운 경전을 읽지 않고 어이하리.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원난방산업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신 화 불 사

매 물 안 내

법 당 이익공 27평 ····· 3,000만원
요사채 초익공 ㄱ자집 33평 ····· 3,000만원
대중간 초익공 45평 ····· 4,500만원
사주문 7포 약 10평 ····· 2,000만원

위 사찰 제목은 다른 장소로 옮겨 지으려
정성을 다해 철거했으나
부득이 철거 비용도 안되게 처분하오니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불사 합장

☎ 010-6545-202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❷ 우 딴신(U Thant Sin) 주한 미얀마대사



▶ 한줄요약
우 딴신 주한 미얀마대사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의전국장을 역임한 독실한 불자다.

한국 속 미얀마 상징…불심 · 전문성 갖춰

한국의 작은 미얀마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미얀마 대사관' 이다. 미얀마 대사관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미얀마로 가는 문을,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고국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미얀마 정부를 대표해서, 우 딴신(U 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와 미얀마 외교관들이 미얀마와 한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미얀마 대부분 국민들이 불자(佛子)이듯이 미얀마 대사관도 예외는 아니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을 대표하여 우 딴신 주한 미얀마 대사의 삶 속에서 불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 딴신 주한 미얀마대사.


한국의 미얀마 법당에서 법회가 끝난 후 미얀마 불자들과 함께한 단체사진.

국제협력 정책 분야 전문가

우 딴신 대사는 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논문을 썼다. 1990년에 미얀마 외교부에 입사하여, 필리핀 주재 미얀마 대사관, 스위스 제네바, 뉴욕 유엔 본부 미얀마 대표부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미얀마 외교관이다. 2019년 한국에 주한 미얀마 대사로 부임하기 이전에는 아웅산수찌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의 의전국장을 담당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해외순방을 할 때 찍힌 사진에 보면, 우 딴신 대사가 항상 최측근에서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1세에 출가해 신뿌의식 체험

미얀마의 남자라면 누구든 어린 시절에 한 번씩 출가한 경험이 있다. 이것을 신뿌(Shin Pyu) 의식이라고 부른다. 우 딴신 대사는 11살 때, 신뿌 의식을 치뤘다. 그는 스님처럼 삭발을 하고, 절에 들어가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배우며 수행을 했다. 미얀마 사람들은 신뿌 의식을 치루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우 딴신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엔 15분, 저녁엔 45분 정도 부처님께 예불을 드린다. 예불이 끝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처님 공덕과 자비를 전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시간은 그에게 마음과 몸이 청정해지는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시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는 30분 정도 위빠사나 명상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위빠사나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정견(正見)의 힘도 기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미얀마 대사이기 전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불경의 경구는 그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선업을 쌓으면 선업의 결과가 언젠가 나타난다는 것을 불교를 통해 배웠다.

그가 가장 좋아하고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처님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꿈을 꾸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는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꿈꾸기만 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현재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부처님의 "중도사상"을 생활에 적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잠깐이라도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 딴신 대사도 이와 같은 노년의 삶을 보내고 싶어한다.

>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는 공간
> 서울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서
> 미얀마 · 한국교류 · 외교매진
> 아웅산 수지 의전국장 역임해
> 불심이 돈독한 대표적인 불자
> 매일 예불하며 하루를 시작해


미얀마 사원 법회에 참석한 우 딴신 대사.

우 딴신 대사가 들려주는 미얀마 불교

미얀마는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자이다. 불자인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불교리는 "오계(五戒,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세 번째: 음행을 하지 마라,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다섯번째: 술에 취하지 마라" 이다. 미얀마에서 불교가 국민들 삶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바간 왕조 시기부터이다. 미얀마 국민들은 바간 왕조에서 아노야타 왕을 굉장히 존경한다. 아노야타 왕은 신아라한 스님을 통해 바간 왕조 백성들에게 테라와다 불교를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바간에 수많은 탑과 사원이 생겨났다. 아노야타 왕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테라와다 불교는 미얀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미얀마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삼독(三毒)을 멀리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탐 · 진 · 치에서 벗어나 진실한 마음으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동료를 존중하며, 어리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불교가치가 현대 사회를 조화롭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 딴신 대사는 한국 불자들에게 미얀마의 고승인 시따구 스님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다. 미얀마 국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시따구 스님은 양곤과 사가잉에 '시따구 불법(佛法) 국제 아카데미' 를 운영하고 계시다. 매년 미얀마를 비롯하여 해외에 불교철학과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미얀마어, 영어, 빨리어로 된 불교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에게 시따구 스님은 존경받는 고승이며, 선사(禪師)이자 불교학자이다.

미얀마의 현재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도 매일 부처님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한다. 이미 오래 전 국가고문이 저술한 책에서도 불교 수행과 관련한 부분을 밝힌 적이 있었다. 하루에 한 시간씩은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수행한다. 과거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탄트 사무총장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동일하게 매일 명상과 경전 독송으로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미얀마 부처 중 하나인 종교문화부에서는 새해 안거 기간이 되면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미얀마 대사관도 종교문화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 계신 미얀마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행사를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인천과 부평에 있는 미얀마 절을 방문하여 부처님께 예불을 드린다.

주한대사 발령 후 한국 산사도 방문

우 딴신 대사는 한국에서 대사를 지내면서 한국 절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체로 한국 절들은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산 속에 위치한 한국 절에 방문하면 자신도 모르게 한국 산사의 고요함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고요함은 그에게 큰 기쁨을 줬다. 그는 한국과 미얀마에서 불교는 불자들의 삶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우 딴신 대사와 진행한 인터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쉽사리 떠나질 않는다. 그는 미얀마의 옥스퍼드 스님이라고 불리는 담마싸미 스님의 말을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미얀마와 세계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세계평화는 우리 마음속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평화가 표면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한 감정을 갖기 위해 스스로를 돌본다면 우리는 작지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평화가 없다면 주위에 다른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얀마를 대표하는 우 딴신 주한 미얀마 대사의 삶을 통해 현재 미얀마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불교적인 단면을 살펴보았다. 우 딴신 대사를 많이 만나 본 것은 아니지만, 각종 행사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평온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던 우 딴신 대사의 모습이 하루 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꾸준한 명상과 경전 독송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매순간 불교 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순간들이 모여 우 딴신 대사를 만든 것이 아닐까? 〈양곤대 박사과정〉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부처님 입과 법으로 태어나야 '佛子'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⑥ 사리불의 감격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곧바로 일어나 두 손 모으고, 부처님의 존안을 우러러보면서 사뢰었다.

"지금 세존으로부터 이 가르침 듣고, 마음이 기쁘고 경탄스럽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듣고, 여러 보살들이 수기를 받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들은 끼지 못하여 스스로 슬퍼하여 여래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산림의 나무 밑에 홀로 앉아 있거나 거닐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법의 성(城)에 들었거늘, 어째서 여래께선 소승의 법으로써 우리를 제도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는 저희들의 허물일 뿐 세존 탓이 아니시니, 왜냐하면, 만약 저희들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는 데 원인이 되는 가르침을 설하실 때를 기다렸던들 반드시 대승으로 구제받았을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방편으로 설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여 처음 부처님 법을 듣자마자 곧 그것만 믿고 사유하여 깨달았다고 생각해 버렸나이다. 그리하여 세존이시여,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밤낮으로 항상 자책만 하였는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던 놀라운 법을 듣고, 온갖 의심이 끊어져 몸과 마음이 태연하여 상쾌한 편안을 얻었으니 오늘에야 제가 참으로 부처님 제자라.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으며, 법으로부터 변화되어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의 유산을 얻은 줄 알겠습니다."

〈비유품〉에 나오는 첫 장면이다. 법화일승법을 듣고 사리불이 경탄하는 내용이다.

법화법문을 듣기 이전에는 소승의 법으로써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야 듣지 못했던 놀라운 법을 듣고 참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감격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불자(佛子)'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으며(從佛口生), 법으로부터 교화되어 태어난(從法化生) 사람이 불자라는 것이다.

이 말은 〈화엄경〉에도 똑같이 나온다. 육신의 탄생 이후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난 제2의 탄생이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인격(人格)에 불격(佛格)과 법격(法格)이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대승경전이 나오고부터 경문에 소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며 소승을 평가절하하여 거리를 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법화경〉이 대표적이다. 법화 법문을 듣기가 거북하여 5천 사부대중이 물러갔다는 이야기와 부처님 본래의 법문인 일승법은 소승(小乘)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다분히 이승(二乘)을 배격하기 위한 말이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한 말이다. 같은 불교에서 왜 나중에 설한 부처님의 말씀이 먼저 설했던 말씀을 뒤집어 부정해버리는가? 비록 부처님 설법이 중생의 근기에 따른 방편설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신 말씀을 뒤에 가서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기가 실로 어려운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진의가 〈법화경〉에서 설해졌다고 한다.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은 〈선원제전집도서〉에서 불교 전체를 선(禪)과 교(敎)로 나누어 각각 3종(三宗)으로 구분, 서로 짝을 맞추어 선교일치를 주장하였다. 규봉의 교삼종(敎三宗), 선삼종(禪三宗)은 각각의 이름이 있으나, 쉽게 말하면 '있다(有)' 고 말한 것은 상종(相宗) 법문이고, '없다(無)' 고 말한 것은 공종(空宗) 법문이다. 그리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非有非無)' 고 말한 것은 성종(性宗) 법문이라 하였다. 이는 모두 말로써 표현하는 논조(論調)를 가지고 구분한 것이다.

부처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두고 초기에는 유(有)를 설한 상종 법문이라 하고 중기에는 공(空=無)을 설한 공종 법문이라 하며 후기에는 비유비무(非有非無)를 설한 성종 법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논조를 달리하여 설했기 때문에 경전에 따라 주장하는 바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사리불은 법화 법문을 듣고 부처님 유산을 얻은 것 같다고 감격해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타인 행복 걱정해 주는 것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⑥ 불살생계의 실천

오계(五戒) 가운데 첫 번째인 불살생계(不殺生戒)는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자이나교 등에서도 중요하게 여긴다. 불살생계는 모든 생물의 살생, 살생의 원인 제공 또는 살생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생물은 아주 작은 벌레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불교 용어 가운데 유정(有情)에 해당하며, 초목이나 산천 등을 가리키는 비정(非情)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이나교와 달리 극단적인 불살생계의 실천을 권장하지 않으며,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中道)를 강조한다. 또 불교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을 더 나쁜 것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 불가피한 살생 행위보다 의도적인 살생 행위를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어떤 행위의 선악은 행위의 '의도' 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살생계는 모든 생물, 즉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살생 행위를 삼가는 것이다.

살생 행위는 여섯 가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 살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살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화살이나 총을 쏘거나 수류탄 또는 돌 등을 던져서 살생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함정을 파거나 덫을 사용하여 살생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진언이나 마술로 살생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마력(魔力)이나 영력(靈力)으로 살생하는 것이다.

이외에 살생 행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 두 번째는 그 존재가 생명체라는 인식, 세 번째는 살생하려고 하는 의도, 네 번째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살생 행위, 다섯 번째는 살생 행위에 따르는 실제 죽음이다. 아울러 살생에 따른 죄의식의 정도는 살생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희생물의 크기와 지적 정도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동물보다는 인간을, 작은 동물보다는 더 크거나 많이 발전된 동물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더 나쁘게 여긴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생 행위를 삼가는 것만으로 살생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누군가로부터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갈등이 있게 되면 마음속에 불건전한 의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불건전한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불살생계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덕성인 자애[慈]와 연민[悲]을 계발해야 한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애심으로 충만하다면 살생의 주요 원인인 분노를 제거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면 폭력에의 욕구가 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애와 연민이 충만해진다면 다른 존재에 대한 살생 행위나 폭력 행위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불교학자인 피터 하비(Peter Harvey)는 '각각의 계율은 삼감으로써라는 부정적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점차 불선(不善)한 행위의 뿌리가 약해짐에 따라 긍정적 덕성을 표현하게 된다' 고 설명한다. 그는 '불살생계의 긍정적인 상대(相對)는 친절함과 자비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걱정해 주기 위한 것'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불살생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점차 살생하려는 의도가 약해져서 자애와 연민으로 다른 존재의 행복을 걱정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살생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의도적인 살생 행위를 삼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⑥ 철제 발우와 고대 인도의 야금술

왜 철제 발우 사용했을까?

출가사문이 지닐 수 있는 개인 소유물은 각 종교마다 조금씩 달랐다. 불교 수행자들은 대략 일곱 가지에서 여덟 가지 정도였는데, 옷과 발우를 기본으로 해서 바늘과 지팡이, 치목(양치하는 나뭇가지), 허리띠, 지팡이 등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발도구 같은 것도 포함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율장의 기록들은 석가모니보다 훨씬 후대에 정해진 규정일 것이다. 이러한 도구들 가운데 몇 가지는 금속으로도 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발우(鉢盂)나 바늘, 그리고 이발도구 등과 같은 것이다.

발우는 대체로 철이나 나무, 토기 등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나 토기로 만든 발우는 수분으로 인해 쉽게 썩거나 파손될 수 있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돌이나 나무, 기타 금속으로 만든 발우는 금지되기도 하였다. 혹자는 토기 발우가 아니라 도자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설사 도자기술이 있었을지라도 도자기 제작의 난이도나 수행자들이 지닌 채 쉽게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철제 발우도 그 제작이 간단하지 않으며 견고성을 제외하면 휴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왜 철제 발우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남는다. 단순히 고대로부터 인도에 철이 풍부하고 야금술이 뛰어났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 인도나 파키스탄 등지의 남아있는 고대의 발우는 쇠로 만든 발우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최소한 기원후 1, 2세기경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 당시 이런 형태의 발우를 실제로 사용했는가는 의문이지만 탁실라 등지에서 보이는 철제 발우는 현재의 모양과 거의 흡사하다. 특이한 것은 어떤 철제 발우는 녹슬어 떨어져 나간 바 없이 매우 표면이 깨끗하여 거의 수십 년 혹은 백여 년 전의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고대 인도인들이 철제 발우를 만들 때 주물(鑄物)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담금질을 거듭하며 두들겨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산화를 늦추거나 자연적인 표면처리를 의도했을 수도 있다.

고대 인도의 야금술에 대한 기록은 후기 베다 시기부터 분명히 나타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철(ayas)의 활용에 대한 단서들이 많지만, 이 시기 이후에 더 분명한 설명들이 등장한다. 담금질(pīta)과 주조(śaikya)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는 현재의 유산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델리의 꾸뚭 미나르에 가면 굽타왕조의 유적지인 우다야기리에서 옮겨온 7미터 가량의 철기둥이 서 있다. 놀랍게도 이 기둥은 연철을 두드려서 제작한 것일 뿐 아니라 1500년의 시간 동안 야외에서 녹슬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한 채 그 위에 새겨진 금석문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그 비밀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원후 5세기경의 이 철기둥은 고대 인도인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지만, 인도의 야금술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크테시아스(Ctesias)는 페르시아왕에게 선물한 '인도의 칼' 을 말하고 있으며, 헤루도투스는 '인도산 화살촉' 의 뛰어남을 기록하고 있다. 1세기경의 또 다른 역사가 퀸투스 쿠르티오스(Quintus Curtios)는 알렉산더가 인도왕 포루스를 굴복시켰을 때 알렉산더가 포루스 왕으로부터 '인도의 철' 을 선물 받았노라고 적고 있다. 서술의 진위와 무관하게 이러한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 인도에서 생산된 철의 품질과 야금술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이후로도 중세가 지날 때까지 인도의 철과 야금술을 전설적인 경지로 끌어올린 것은 '우츠(Wootz)' 라 불렀던 인도산 철이었다. 이 철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수출되어 전투용 검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십자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소위 다마스쿠스 칼이다. 이 생산기술 역시 다 소실되었으나, 최근 부엌칼로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다마스쿠스 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고대 야금술의 겉모양만 흉내 낸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새해에도 BTN과 함께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성우스님 시집 '마음'발췌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HD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8호 | 17 | 전면광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오직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법광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223-3705

★검 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행자승(20세 ~ 45세)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절에서 요양삼아 기도하고 소일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경기도 양평 기도영험도량 천인사

031)773-7746 , 010-8777-1775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3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수목사업 동참인(스님,재가자) 모심

대한불교진조계종(등록고유번호 218-89-0064)토굴 백장사에서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위 부지에 소규모 수목관 및 수목원 시설추진 사업에 있어, 동참하실 스님과 재가자를 모십니다.

대표 유담 합장 010-4501-2315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同聲相應하고 同氣相求할
같은소리로 상응 같은기운 서로 구

因緣을 찾습니다.
인연

鄭○溶 (남.64세) 010-6401-2023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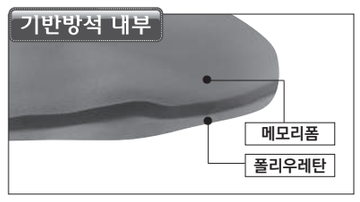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8호 | 18 | 전면광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중생심을 경계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앞마당까지 진입
- 대지1500평, 개발예정지4000평, 개발된것1500평, 건물 36평 2동, 8평 1동 콘테이너 8평

010-4752-0459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땅값만 받습니다
- 총 530평, 현재 성업 중
- 법당, 요사채, 공양간, 휴게실, 삼층석탑, 석등 등, 부산 울산간 지하철 역과 5분거리
- 가액 : 6억 2천만원, 스님 직접

010-2702-0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8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783-2번지
- 대지110평, 전354평
- 가격 절충
- 심명암 심오 합장

010-3340-6537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포 교 원 할 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 2층건물에 2층, 20평 남향
- 코너건물, 보증금 2백, 월 40, 시장옆
- 공양주, 부전 일할분, 쓸분
- 대출안내, 매매상담(상신사)

010-5381-1419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 찰 안 내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2백, 월세15만 권리금3백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4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금 4천5백만원(시설완비)

010-9015-4040
010-2077-7820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사찰(급)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 전주시 전경 한눈에, 이성계 기도처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년세 10만원) ● 법당(요사체 최신형), 극락전(목조신축) ● 가액 : 4억5천만(대출 2억5천만, 추가대출 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석불, 석탑 포함(석불 1억5천 조성) ● 납골당 설치됨, 시내중심, 대나무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 ● 1억5천만원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 잔금 5천만원 3년간 분할납부 ● 용왕전 약수터 2억 토목공사중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3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세종시 상가안내

◈ 사찰·토지·임야와 교환도 가능 ◈
정부청사앞 인기 급상승자리
7층(E/V有) 분양138.6㎡
가액 6억(절충가)
융자1억8500, 실가액4억
현재 레스토랑 운영중
(보2천-월138임대중 23년만기)
업종변경가능·임대업최적·투자가치최상급
시세대비저렴함·주인 직거래

010-6892-399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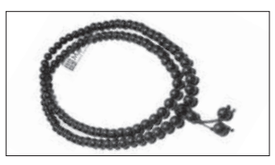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나도 우주도 네 편이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똑똑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훌륭해. 고통은 숙명이 아니야. '운이 다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야.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경험하는 고통이 그 무엇보다 힘들게 생각되겠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네가 방향을 다시 찾으면, 그 때 모두 없어질 거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길 말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 삶과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맞춰 봐. 그러면 기쁨과 총명한 머리가 다시 살아나. 그리고 걱정 마. 나도 우주도 네 편이야. 힘내 친구야. 응원하고 있어.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③ 무이암차

천년 바위에 스민 백가지 꽃향기

세계 자연유산인 중국의 무이산은 천년 동안 황실의 다원으로 보존되어 온 곳으로, 차나무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 좋은 차나무가 나는 곳입니다. 선인(仙人)들의 수련터라고도 불리는 무이산은 많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암석들 사이에서 자라는 차나무를 무이암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이암차에는 천년 바위가 지닌 기운과 향 등 다른 차나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천년 바위와 함께 살아온 무이암차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맛과 향 등 차(茶)의 우수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식지의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흙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이산의 흙은 특별합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보호하고 있는 단하암층의 붉은 사암입니다. 무이산은 퇴적층의 침식과 융기작용으로 풍경이 독특하고 수려합니다. 서른 여섯 개의 산봉우리가 연달아 이어지며 아흔아홉 개의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룹니다. 이 단하암층의 바위 사이사이에서 무이암차나무가 자랍니다. "바위마다 차나무가 있고, 바위가 없으면 차나무도 없다(岩岩有茶,无岩不茶)"고 할 만큼 무이산의 차와 바위는 하나의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찻잎으로 만든 차는 폴리페놀,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무이암차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영양성분은 붉은 사암에서 끌어올린 광물질입니다. 차나무 뿌리가 단하암층의 풍부한 광물질을 흡수하여 영양학적으로 인체 세포에 꼭 필요한 칼륨, 불소,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인, 아연 등 미량 원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흙과 더불어 무이산의 물 또한 특별합니다. 붉은 사암 동굴을 통과해 내려온 계곡물이 굽이굽이 아홉 계곡을 따라 맑고 청량하게 흐릅니다. 아침에 안개가 피어오르면 계곡 사이에 가득 차서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운무가 발달한 곳에서 자란 차는 그 맛이 달지요. 무이산의 구곡계는 몽환적인 색채를 더하며 찻잎에 달콤한 이슬을 꼭꼭 채워 넣습니다.

천년 바위 기운 향 등 특별함
단하암층 풍부한 광물질흡수
300번 흔들어 꽃향을 터뜨려

무이산은 문화적으로도 특별한 곳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선인(仙人)의 수련터였습니다. 신선의 땅이라고 해도 어울렸지요. 당나라 현종은 무이산에 매료되어 어업도 금지하고 벌목도 금지했습니다. 무이산의 어떤 힘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르지만, 황제의 명령이 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송 · 원 · 명 · 청 시기에는 황실에 차를 공납하는 어차원이었습니다. 또 주희(朱熹, 1130~1200)가 무이정사를 짓고 성리학을 완성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주희는 잠깐 관직에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생을 무이산에서 살았습니다. 굽이굽이 아홉 계곡을 돌아 맑은 물이 흐르며 산수가 수려한 이곳에서 흥이 나면 배를 타고 시를 지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무이산에서 자라는 무이암차.

무이암차에는 바위의 에너지가 꽉 찬 맛, 그래서 "암운이 감돈다, 묵직하다, 바디감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차의 경전이라고 부르는 〈다경(茶經)〉에는 "란석에서 자라는 차가 최상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이암차는 특별한 바위에서 특별한 물을 마시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으니 '차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와 사랑〉의 주인공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합쳐놓은 것처럼, 무이암차의 특징은 암골화향(岩骨花香)입니다. 바위의 바탕에 꽃의 향기, 이 아름다운 차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천년 바위에 꽃향기 스민다. 무이암차의 꽃향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위에 꽃향기를 앉히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태생적인 꽃향기입니다. 무이산은 지구상에서 아열대원시림이 가장 잘 보존되어온 원생태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전문가집단의 조사에 의하면 총 3728종의 식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골짜기마다 수백 가지 꽃이 피고 약초가 자라서 공기 중에 이미 신선한 꽃향기와 약초향기가 스며있습니다. 차나무는 주변의 향기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무이산에서 나는 차는 어떤 향과 맛일지 상상해보세요.

무이암차의 꽃향기를 극도로 증폭시키는 것은 '흔들림'입니다. 흔들리는 청춘 시기를 지나야 꽃향기를 품어냅니다. 무이산의 찻잎은 흔들림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 잎 한 잎 대나무 채반에 펼쳐진 찻잎은 300번 흔들립니다. 12시간 동안 흔들어 줍니다. 푸른 잎 주변이 흔들린 상처로 붉어져서 홍엽이 될 때, 비로소 잎 속에 숨어있던 향기분자들이 터져 나옵니다. 흔들고(요청) 비비고(유념)를 반복하는 것은 우롱차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무이암차는 우롱차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서 장시간 탄배 과정을 거쳐서 명차 중의 명차로 불리는 무이암차가 탄생합니다. 바위 에너지에 백가지 꽃향기, 난향, 계화향, 복숭아향, 우유향을 뿜어내는 암골화향의 무이암차가 됩니다.

"나는 원래 무이암차를 좋아하지 않았어. 너무 진해서 약처럼 보였지. 어느 가을에 무이산에 놀러갔다가 만정봉 천유사에서 스님이 우려 주는 차를 마셨네. 찻잔은 호두만하고 찻주전자는 귤만 하고, 따라봐야 겨우 한두 잔 나오는 크기인데, 차 한 잔을 마시니 황홀하여라. 목에 차가 넘어가기도 전에 향기가 먼저 폭발하더니 입에 착착 달라붙으면서 달고 달기가 끝이 없더라. 무이암차가 옥구슬이라면 다른 차들은 수정구슬임을 알겠더라. 품격이 다르더라."(청나라 대표 시인 원매(袁枚), 〈수원식단〉)

차도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야 향기를 품습니다. 흔들림은 천년 바위에도 꽃향기를 불어 넣습니다. 귀공자로 태어난 무이암차는 흔들림을 거치고 매운 숯불 연기를 쐰 다음에 비로소 암골화향의 명차가 되었습니다. 무이암차의 4대 명차로는 대홍포, 철라한, 백계관, 수금귀가 있으며, 무이암차의 대표 품종은 수선과 육계입니다.

〈잇다it茶 대표〉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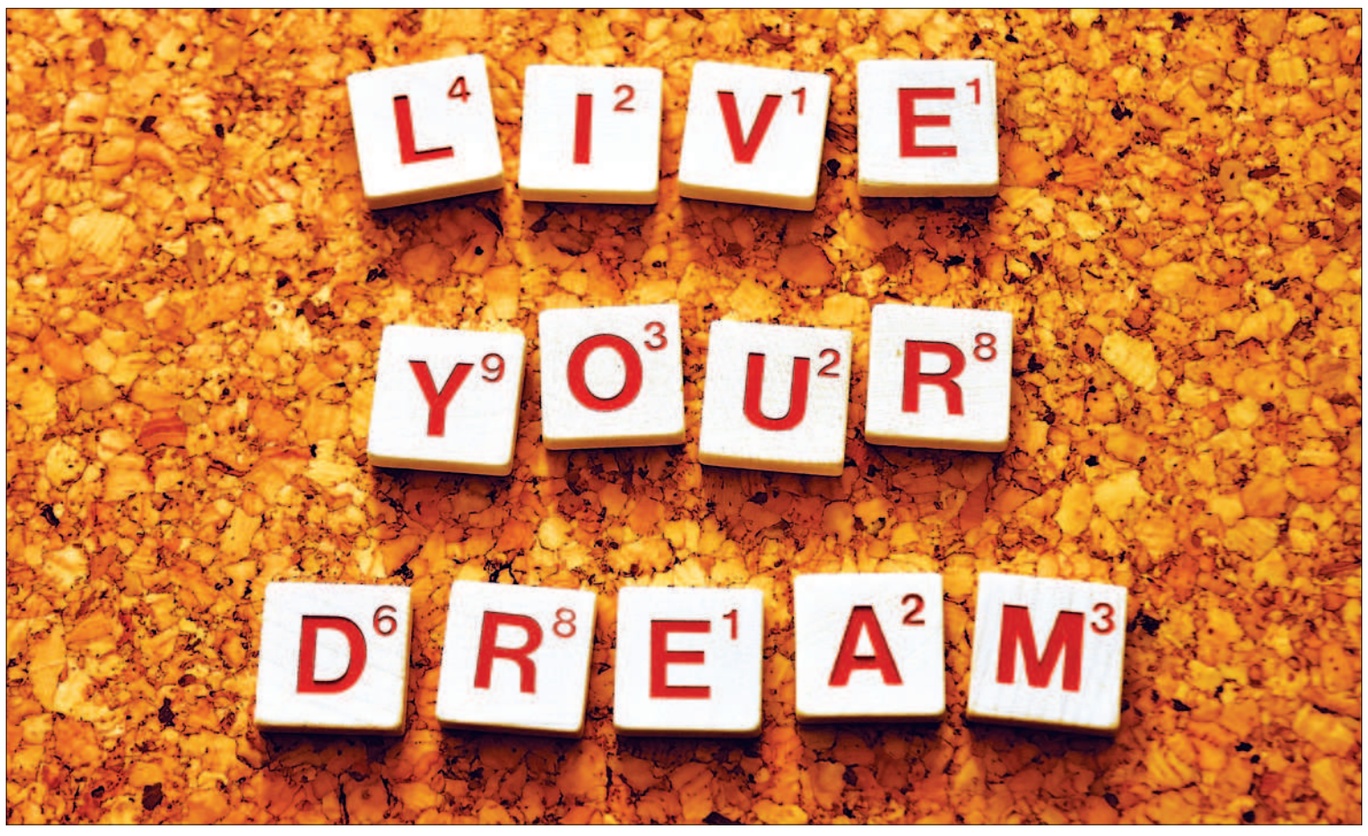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당신의 자존감은 안녕하신가요 ❶ 자존감

▶ 한줄 요약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게 된다.

자존감이 자비와 사랑 만든다



우리는 모두 각각의 인생 여정에 있습니다. 때로 그 길은 즐겁고 감사한 일로 가득하고, 때로는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하지요.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무상하게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불안, 자신감과 두려움으로 뒤범벅된 번뇌망상의 연속입니다. 특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 못지 않게 올여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 산불 등의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삶은 우리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아초월의 세계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마음을 쉬며 내 삶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웬만큼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도 너무나 쉽게 불안해지고 나약해지는 자신을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경쟁에 의해 습관처럼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일상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끊임없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생존경쟁의 쳇바퀴를 돌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마치 비교와 경쟁의 얼룩을 닦느라 너덜너덜해진 행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아픈 마음을 부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루만져 주고 달래주는지 가능한 한 친근하고 쉽게 풀어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다룬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동안 행복이 아닌 생존에 초점을 맞춰 살아온 우리의 삶과 일상을 다시 행복으로 전환하는 자양분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래면목, 불성으로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의 회복으로 순간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선물을 잊지 않고 음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삶의 고단함이 실은 하나의 거대한 연기의 발현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연기적 삶을 실천하는 마음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 여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우리 모두가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자존감은 무엇인가?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의 줄임말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느낌, 감정의 정도를 뜻합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주관적이고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믿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스스로에 대해 "나는 멋있어, 잘났어, 못났어" 등과 같은 판단이나 믿음들이 생겨납니다. 자신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은 또한 그에 따른 정서적 상태, 성취감, 우월감, 좌절감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내용과 작용들이 자존감과 관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존감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자신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평가나 태도가 정서적인 심리 상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존감을 정서적인 평가,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할까

자존감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싶은데 그 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자존감이 매우 높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의식 수준에서의 착각일 뿐 우리의 무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로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해 합니다.

삶은 자아초월의 세계
자존감이 행복 이어져
나 자신 사랑표현 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기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 서툴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사랑은 남에게 받거나 주는 것인 줄만 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 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게 날 인정해 달라고 존중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남에게 바라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타자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랑과 인정, 존중은 분명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핍되면 인간관계에서 오고 가는 말, 태도, 몸짓 등 크고 작은 것에 예민해지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쉽게 상처받고 그것이 정신적 웰빙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커지니까요.

반대로 때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소위 한턱 내기도 합니다. 나를 치켜세워주거나 알아주면 아낌없이 돈지갑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충만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으로 사든, 애를 쓰든, 사랑을 갈구하든, 노력해서 어떤 형태로든 채워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못하는 그 마음은 다시 타자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전환되어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학력일수도 있고, 지위나 돈,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존감은 우리의 신경증적 욕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 태도를 결정한다

자존감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자존감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과 타자를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의 정도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타자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짓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선한 행위를 하느냐 악한 행위를 하느냐의 여부가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자기 자신과 타자들, 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나요? 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위에 오르자, 오랫동안 격의없이 지내던 사람들조차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어 격식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권력 다툼으로 서로를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자 이성계의 마음이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과거의 벗과 스승이었던 무학대사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좀 띄워 볼 요량에 하늘같은 스승인 무학대사를 향해 "스승님 얼굴은 돼지를 닮았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임금님의 용안은 부처님 같다"라고 되받았습니다. 이성계가 투정을 부리듯이 재미있으라고 한 말에 어찌 그러시냐며 섭섭해 하니까, 이번에는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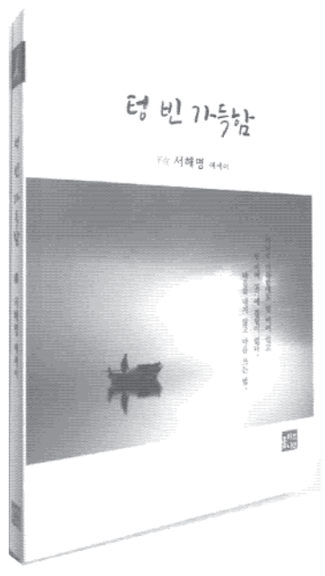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지요."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방어기제 중 하나인 투사의 원조라 할 법한 장면입니다.

자신을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자를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를 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위 '갑질'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입니다. 갑질 행위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무의식 깊이 뿌리박힌 자존감을 높이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남을 학대하는 사람 역시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자기 비난과 자기 무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경쟁, 질투, 분노 등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늘 지옥의 고통 바다에서 허덕입니다. 그러한 내면의 무의식적인 자기비난과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고 극복하려는 어리석은 욕구에 의해 다른 이들을 왕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상대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동저자 : 김정호(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서광 스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불광출판사 펴냄〉

화제의 신간

'나'라고 하는 몸과 맘의 허상을 떠나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무아지경의 황홀한 세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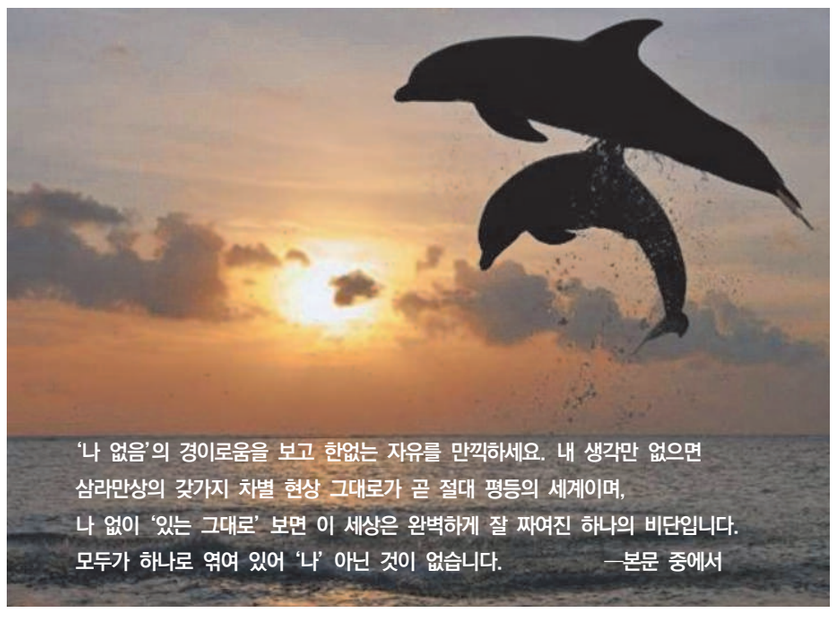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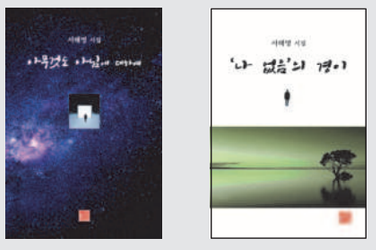
텅 빈 가득함

不在 서해명 에세이

하나로 가득함에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기에 걸림이 없다.
마음을 내지 않고 마음 쓰는 법.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서해명 제1시집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

"나"라는 에고의 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의 이야기— 장엄하고 친밀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절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서해명 제2시집
'나 없음'의 경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해탈한 불교인'이 결혼하면 어떤 옥동자가 태어날까? 일찍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터를 닦은 서해명은 깨침의 종교인 불교를 그리스도교에 접목시킴으로써 '해탈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경의 말씀들과 예수의 비유들이 갖는 참 의미를 발굴하고 확대 증폭하여 인간존재론의 21세기적 비경을 제시, 독자를 무아지경으로 끌어간다.

오리브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10, 705-101
Tel. 070-8274-1226, 010-7755-2261 FAX. 031-629-698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상담 및 강연 요청 ‖ 서해명 010-7770-2644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28 호 현대불교
2021년 2월 10일(음 12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집이 비면 남한테 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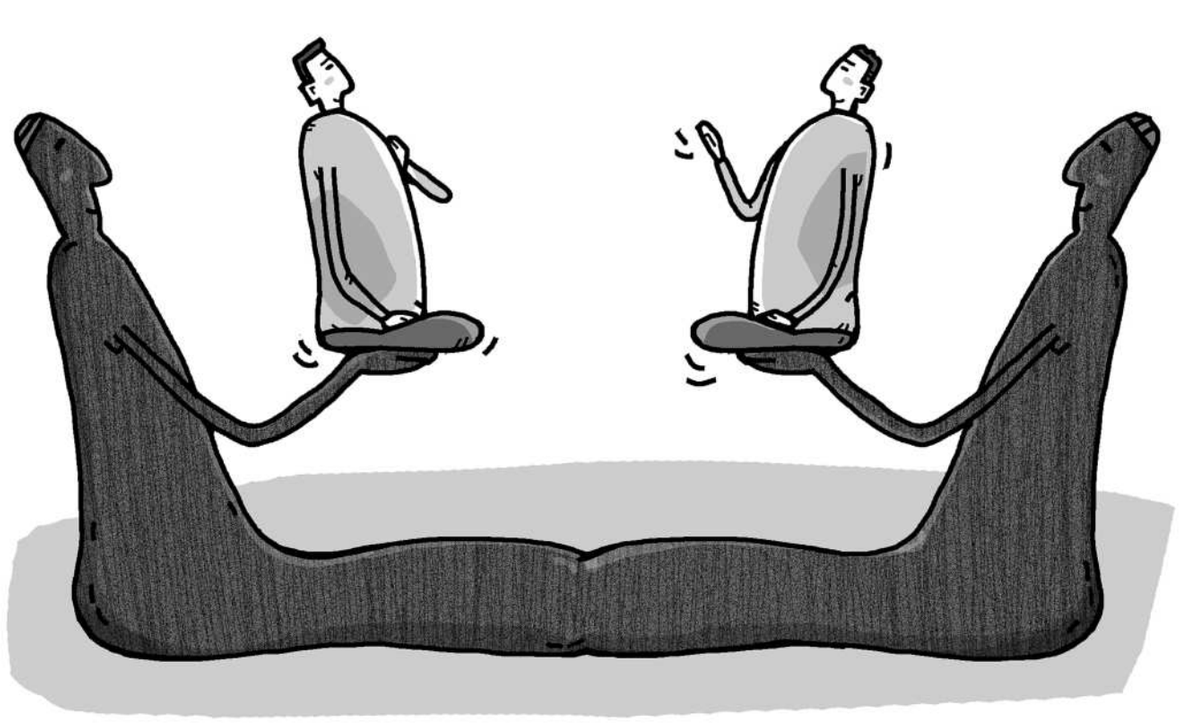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그것이 자연의 섭리로서 그렇다면, 누구한테나 마음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 내는 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은 하나야. 그러나 마음 내는 거는 수억, 우주 삼라대천 세계에 꽉 찰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뱀도 내가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내가 될 수 있고, 새도 내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내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다, 위대치 않다' 하는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순간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모든 걸 놔라. 놔라." 이럽니다.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놈임을 믿지 않고 그놈한테 다 맡겨 놓질 않는다면 그놈은 절대 나오질 않아. 회사에서도 어느 믿을 만한 직원한테다 딱 맡기면 도둑질도 못 해,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해요. 그런데 맡기질 않으면 그게 나오려고도 안 해요. 왜? 막아져 있으니까. 저 잘났다고 턱 하니 자기가 위로 올라앉았으니 참자기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숭배해야 해요.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라고! 겸손하게 보필하면서 자기는 믿어야 된다 이거야, 마음적으로. 그래서 믿어서 그것이 완전히 둘이 아니었을 때에, 아비가 자식이고 자식이 아비이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아비면 그냥 아비지, 왜 아비이자 자식이고 자식이자 아비라고 그러느냐? 불이법이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길이 될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높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고 아주 하(下)의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자식이 없다면은 이건 뭐, 진리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삼위일체로써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러는 법은, 즉 말하자면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로 돼 주고, 아들이 일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가 돼 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될지언정 결국 하나다 이겁니다. 뱀이 일할 때는 스님도 뱀이 돼 버리고 또 스님이 일할 땐 뱀이 바로 스님이 돼 버리고, 사자가 스님이 돼 버리고 스님이 사자가 돼 버리고, 코끼리가 사람이 돼 버리고 사람이 코끼리가 돼 버리고…. 그게 마음은 하난데 마음이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을 낼 수 있으니 그 모습조차도 바뀌지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계발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의 이 토대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모두들 지수화풍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지수화풍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지금 우린 꼼짝도, 아니 생겨나지도 못했죠.

지금 다른 혹성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지구에도 그렇지만 법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구에도 망사처럼 이렇게 큰 둘레로 돼 있는 법망이 있습니다. 그 법망으로 인해서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바깥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핏줄처럼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법망이 보이지 않는 데 법망이거든요. 조금이나마 바깥으로 표현된 것도 천체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표현된 거지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현세에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끔 나온 것이 어찌 과학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자체 속에서 분자에 의해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이렇게 자꾸자꾸 나투면서 우리는 지금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발하면서 활발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지금 내가 저기 갔는지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 속의 오장육부 세포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묘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도 누가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 배 속의 생명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알고 있으니, 우주간 법계에 다 이건 그냥 파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거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을 하더라도 거짓 아닌 거짓을 하라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남을 위한 거짓이라면, 부모를 위한 거짓이라면, 자식을 위한 거짓이라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이것을 잘 음미해 본다면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진출하는 이런 마음은 부처님 법의 경을 읽고 또 이론으로 알고 또 물리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내가 집어 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한번 집어 먹을 줄 알고 남을 줄 안다면, 그것은 자기 죽는 거, 이 옷 벗는 거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자리 저 자리를 육신으로 다니며 하려면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몇 안 되고,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또는 대포를 가지고 해도 싸움이 됐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사람도 많이 생겼을 뿐 아니라, 사람의 머리도 그만큼 깨였고, 그만큼 과학적으로 발달이 됐고, 문명으로나 모든 걸로 봐서는 지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이 공부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공중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커버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는 대인이 되시라 이겁니다. 이파리 하나 가지고도 군사를 몇백 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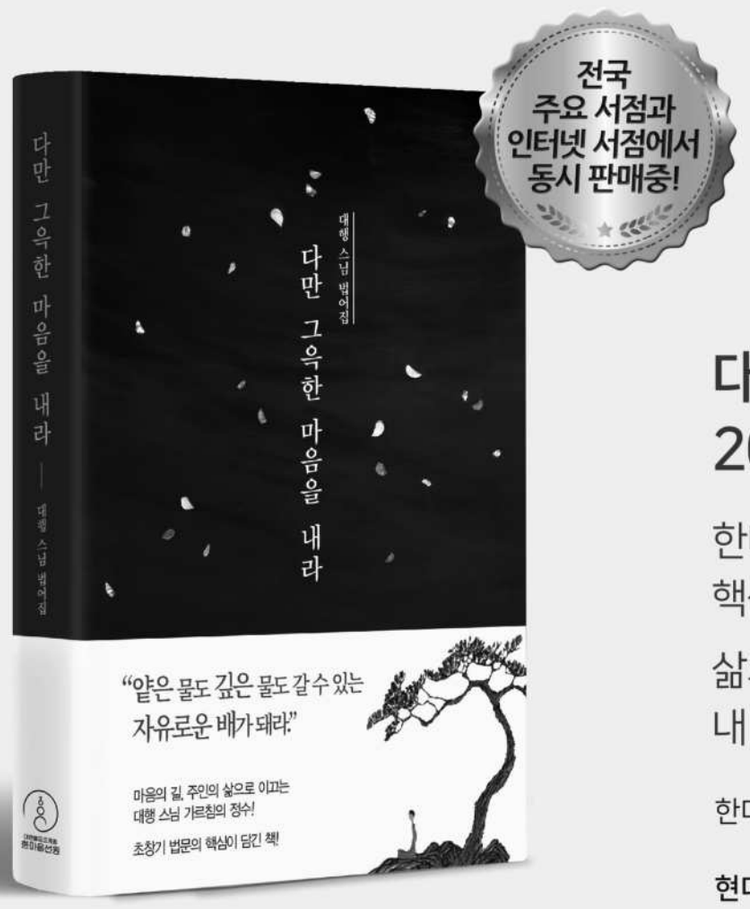
그런데 뭐가 언짢고 귀찮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인간살이를 어렵게만 생각해서 그런데, 고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주인으로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부와 자가 하나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 내는 거는 수억만 가지입니다. 수억만 가지가 한마음으로 들고, 한마음에서 수억만 가지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법이고 광대무변한 자신의 보배를 자신들이 가졌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수억만 명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덮게끔 할 수도 있어.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각 혹성에서도 바라고 있으니까. 모습 있는 생명들도 많지만, 모습 없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다 친구라면, 무서울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도 사람을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를 때도 사람 마음을 거기 줬을 때에는 그 소가 '아하, 이 마음이 이러니까….' 하고 그냥 마음에 따라서 같이 알게 돼요.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길을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죠. 사람은 전체를 알고 있는데, 짐승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알고 있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예를

☞ 22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참자기를 탄생시키려면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승배해야 해요

☞ 21면에서 계속

들어 공산주의 나라가 독재로 다스려서 이익이 뭐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계발을 한다면, 또 모든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만든다면,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3, 4년 전 얘기일 겁니다. 나는 중공이든지 소련이든지 어디든지, 민주화로 좀 이렇게 같이, 물을 좀 갖다 섞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섞지 않는다면 살기가 희박하다는 문제입니다. 전부 계발하기도 희박하고, 또 불국토를 가져오는 것도 희박하고, 또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큰 절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생명체들이 잘 살 수도 없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너그러워야, 썰물 밀물이 같이 혼합을 해야 살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고, 또 지혜가 나오고 물리가 터지고 불국토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과학도 더 나가서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원력이 아니라, 서로 둘이 아니게 교류를 맺게 하고 인연을 맺어 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 이런 얘깁니다. 원력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를 죽이고, 어느 나라를 살리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앉은 자리 딱 지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자기네 집 지키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한 분이나 계신 거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다가도 자기네 집으로 들어갑디다, 모두. 거기는 꼭 지키더군요. 어디 나가서 여관에 가 자도 내 집이 있다는 건 꼭 지키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부, 이러한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워도 그 애가 스스로 밝은 길을 걷도록 가르칠 때, 말로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전화통이 있고 그 애 전화통이 있는 이상, 내가 그 애 번호를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 그거는 억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뿌리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다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이 스스로서 밝아서 스스로서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어어! 이 절은 뭐 이상해." 그러죠? "뭘 놓으래? 사랑도 돈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미거한 소린 하지 마세요. 사랑도 돈도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나요? 하되,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 소립니다. 자기 게 아니라 자기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그것을 잘 아신다면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시봉자로서, 자기의 시봉자로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또는 시봉자는 주인에게 '너는 차가 고장 났으면 올바로 고쳐서 끌고 다녀라!' 이렇게 하라 이 소립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장 시한에 닥치는 일들,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일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수 있었겠나? 박 대통령 당시에도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됐지!' 이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니깐 그렇게 됐지!'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마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도 내 자식이지마는 너무 남한테 해롭게 하고 그래서 열 번만 그렇게 끌려가 보세요. "그 새끼는 내 새끼 아냐! 가만 둬, 잡혀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 버립니다. 열 번을 타일렀는데도 열 번을 붙잡혀 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건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더라도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집이 비면 남한테 차여! 환경에 따라가다 보면 그만 흔들리고 중심이 없고 집이 비게 돼요. 그럼 그 집에 남이 들어서서는 내 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달마 대사가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깐 내 집에 누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서 비워 놓은 딴 집에 들어가서 털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한 가지 벌어졌으면, '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달마 대사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달마 대사로 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달마 대사는 재주가 그만큼 없어서 바뀐 겁니까? 남의 집을 뺏을 줄 몰라서 뺏긴 겁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부해 가지고도 집 뺏길 정도라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그건 달마 대사 자격이 없죠, 하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들었으면 한번 음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마음의 도리로,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난해서 아주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리를 안다면 나물죽을 먹고도 껄껄 웃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멋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반찬에 잘 먹고선 그냥 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보다 참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맛이란….

여러분이 여기 스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좋고 좀 더 맛있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공양을 하고, 좀 더 후진 거는, 또 후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후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감지덕지죠. 그래서 천차만별로 나눠 주죠. ' 스님네가 심부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미처 나는 몰랐구나. '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구나. 이렇게 중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은 내가 애당초에 생각을 못 했구나.'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어렵다는 것도. 그러나 어렵다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 왜? 내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어. 나 하는 대로 그냥 꾸준히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니까. 저 물 흐르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 법계에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내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 않게 살아라." 하는 얘깁니다.

남이 두렵고 남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참, 부모도 없고 불쌍한 애들, 어떤 때는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럴 때는 말이죠, 참,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주었다는 거 말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체면도 있지. 그럴 때 그냥 내주면서도, 그것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마음 편안하려고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중노릇하기 참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빚을 내서 시주를 한다고 가져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줄 때가 있죠. "아, 누가 빚 내 가지고 오랬어?" 그러고 주면서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 난 괴롭기 싫어. 이게 이자 늘어 가면 내가 죽겠어. 당신이 죽겠는 것보다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난 이거 안 되겠어. 갖다 갚어. 심부름 좀 해!" 이럽니다. 내 심부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 못 하고,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어떤 스님네들은 "병 고치는 게 중인가?" 이러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단이다." 이러기도 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일단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거는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귀찮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일단 되기 위해서, 정법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아픔을 겪어 봤고, 내가 내 아픔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부처 되기 위해서 이 공부 한 게 아니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자연의 섭리야, 이건. 누가 뭐라면 어때요?

내가 겪어 보니까, 이렇게 살아 보니까 참,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 주지 않구요, 똥이 안 나와도 대신 똥 눠 줄 사람도 없구요, 허허허, 참 피곤해도 누가 대신 피곤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대신 울어 줄 사람 없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아픔처럼 아프고 불쌍하게…. 정말 뼈아프게 아픈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럽니다. 왜? 내가 아픈 거를, 내가 빨리 어떻게 어떻게 낫게 하려고 말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얘기 듣기만 하면 됐지 뭘 내가 더 말할 게 있습니까, 괴로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모든 게 나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자꾸 얘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나 하고선 좀 잠시라도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소 안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무슨 부처가 변소 안에 있느냐고 그러더군요. 예전에 두루마기를 입고 변소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급하니까.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어찌 변소 안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때에 어린 마음에도, 지금처럼 나이나 먹었으면 그냥 픽 웃고 말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입이 근지러워서, 허허허. 그러니깐 좀 모자랐죠. "아니, 우리가 변소 안에 드나드는데 부처가 변소 안에 없다구요?" 아, 요렇게 되받았지 뭡니까? 허허허.

그리고 그 스님한테도, 아유,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 몰라서 그랬죠. "당신에게는 반밖에는, 반절밖에는 못 하겠소." 이랬거든요. 허허. 그 왜 그랬나? 그때는 너무 삐죽하고 빳빳하고 아주 눈에 불이 펄펄 날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너그럽게 벼 이삭이 숙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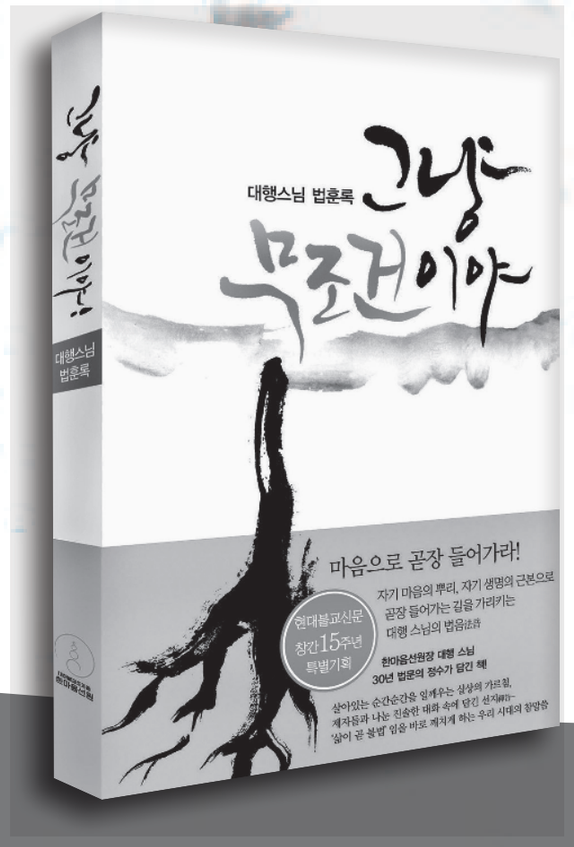
또 무슨 표창장을 주면 "뭐 잘했다고 상장 줍니까?" 이러고,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스님네들이 내게 뭘 주느냐 이거야. 그러곤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 버리는 그런 행태. 그러니깐 몹시 나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벼 이삭이 첫 번부터 익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저게 바로 내 모습이야!', '저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보고 그렇게 겪어 보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다 스승이야, 내 밑거름이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 줬지. 안 받아 줬어도 거름이요, 받아 줬어도 거름이에요.

어떤 한 큰스님은 너무 너그럽게 날 받아 주시고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아주 나이 어리다고 그냥 남몰래 아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욕을 합니다. "저 노장은 도무지, 저 하치않은 애한테 저런다."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누룽갱이 한 조각이라도 몰래 주느라고, 세상에! 이 마음 밖에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마음! 아무리 거대하고 잘나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죽으나 사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고로 그분들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은 앞으로 죽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진화돼서 다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뿐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차원이 바로 내일의 차원이요, 또 내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모든 걸 놔라, 놔라." 이럽니다.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근본을 믿고 다 맡겨 놓지 않는다면 참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현불 논단

인고 아이콘 매화처럼…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매화가 사군자 중 처음인 이유
봄을 알고 먼저 꽃 피우기 때문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개화하기에
매화는 인고의 상징으로 칭송돼
한 선지식 오도송엔 희망 의미로

인고를 통해 매화가 꽃 피우듯이
우리도 코로나19를 견디어 보자
희망은 인고하는 사람의 몫이다

근자 동장군이 물러나고,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났다. 이즈음이면 매화가 그려진 찻잔으로 차를 마신다. 이런 객기라도 부려야 비록 서울 살이지만 봄을 맞이하는 방랑객 느낌이라고 할까? 매화는 한 겨울 혹독한 추위(시련)를 견디고 봄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대표 상징이다.

매화는 사군자(梅蘭菊竹) 가운데 하나이다. 사군자 중 처음인 매화가 봄을 알아채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한다. 그래서 나이보다 성숙한 사람을 '철 들었다' 고 하는데, 이 매화에 비유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이다. 필자가 매화를 예찬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인고' 와 '희망' 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첫째, 매화가 추위를 무릎 쓰고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는 것은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디었다는 의미다. 당나라 조사선의 완성자인 황벽 희운(?~850)은 어록 〈전심법요〉에 이런 말을 남겼다. **"추위가 한차례 뼈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博鼻香)"**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해탈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함을 드러낸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경(詩經)〉 구절을 인용해 "매화는 혹한의 고통을 다스려야 맑은 향을 발산하고, 사람은 어려운 고난을 만나야 그 절개가 뚜렷이 드러난다(梅經寒苦發淸香 人逢艱難顯其節)"고 하였다.

둘째, 매화는 희망을 상징한다.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에도 매화가 등장한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녀도 봄을 찾을 수가 없구나. 짚신이 다 닳도록 온 산을 찾아 헤매었네. 지쳐서 돌아와 우연히 뒤뜰을 거닐다 보니 매화꽃이 거기 피어 있더라." –〈학림옥로(鶴林玉露)〉

여기서는 도(道)가 멀리 있지 않음을 매화에 비유한 것이지만, 필자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싶다.

매화가 인류역사에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식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류사에 수많은 (유정 · 무정)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진 존재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화가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에 고금을 초월해 많은 예술인들이 매화를 예찬하는 거라고 생각된다. 이 매화에 우리네 삶을 반추해보자.

인간 누구에게나 생로병사를 비롯해 고난과 고통은 똑같이 주어진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느 누구인들 그만의 고통과 고뇌가 있다. 혹 왕후장상일지라도 그에 따른 고(苦)가 있는 법이다.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가볍고, 누구에게는 무겁고가 아니라 똑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평등하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기업체 사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어느 위치의 사람이든 짊어질 인생의 책무는 똑같은 법이다.

그러기에 삶의 진흙탕에서 똑같이 주어진 고난을 헤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 것이다. 누가 먼저 툴툴 털고 일어나는가가 관건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곤혹을 치루고 있다. 중소규모 업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도 취업으로 힘든 현실이다. 솔직히 사찰의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 전염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 싫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인가.

인고의 시간을 견디자. 살다보면 살아진다고 하지 않던가! 매화가 인고를 통해 봄에 꽃을 피우듯 현재 우리도 차가운 겨울을 묵묵히 견디자. 모든 만물이 영원하지 않는 무상(無常)한 법. 희망은 견디는 자의 몫이다.

社 說

비구니史 연구, 더 많은 관심 필요

전국비구니회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비구니 관련 역사와 인물,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 조사 · DB구축에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비구니는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오롯이 승가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에도, 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조명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구니승가연구소가 나서서 한국비구니사를 정리하고 근현대 비구니자료집은 물론, 한국 비구니 구술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비구니 · 여성불자 디지털 인물백과사전 발간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근현대를 관통하는 시기 비구니와 관련한 기록은 더욱 미미하다. 비구니 구술 아카이브 구축은 근현대를 살아온 비구니 스님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을 통해 비구니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옥같은 자료가 될 것이다.

비구니와 여성불자 인물백과사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내 비구니스님과 여성불자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발굴 작업의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활동과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한국 비구니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의 한축을 묵묵히 담당하며 포교, 문화, 교육, 학술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젠 비구니 역사와 역할, 가치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체계화해 대중에게 드러내야 한다. 기초자료를 토대로 비구니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어진다면, 이는 곧 비구니 위상 제고와도 직결될 것이며 동시에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비구니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조명은 앞으로 한국불교에서 비구니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원불자회 출범에 부쳐

서울시의회에 작지만 큰 모임이 탄생했다. 바로 서울시의원불자회다. 2월 4일 서울시의원불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21명의 회원의원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서울시의원불자회는 그동안 구심점이 없어 방황했던 불자의원들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수십년의 역사동안 불자회가 없었다. 기독교계가 의회 창립 초기부터 활동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9대에 이르러 불자의원들의 공동신행활동이 조금씩 진행됐고, 10대 시의회에서야 모임이 상설화됐다. 2020년 12월 최기찬 의원을 중심으로 김광수, 경만석 의원 등이 힘을 모았고, 발기인대회를 열게 됐다.

서울시 의회는 수많은 수도권 사찰들의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 국회 정각회와 같이 서울시의회에서 불교관련 법 제개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불자회가 조계종 정식인가로 신도조직으로 발돋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2020년에는 강원 공공기관 불자회가 발족했고,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이제 공사 등 기관 불자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종단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지원조직의 상설화다. 직장직능에서의 불자조직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그 조직의 간사들과 연락하고, 연합법회 등 각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활동을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는 발전하고 조직화는 불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서울시의원불자회의 발족을 계기로 불자조직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길 기원한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알수록 닮은 한국과 스리랑카

한국에서 살다보면 스리랑카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한국과 스리랑카는 상당히 유사한 문화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함께 아시아 권역에 포함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쳐 아시아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아주 작은 연관성이어서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정' 의 문화입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며 노부모를 돌보고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풀며,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받고, 대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입니다. 특히 손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덕목은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또 다른 중요한 문화적 측면은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불교사상이 3~4세기부터 전파되어 신라, 고려 또 통일신라시대 호국불교가 시행되면서 스리랑카와 한국 간에 분명히 교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리랑카와 한국의 불교 연결은 13세기에서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이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불교문화 교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19세기 제2의 아쇼카로 부르는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 스님의 방문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스리랑카인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방문으로 서울 조계사의 석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여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방한을 반기던 모습을 〈조선불교통사〉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1913년 8월20일 실론섬의 고승인 다르마팔라가 서울에 와서, 21일 밤에 승속 남녀 수십여 명이 남산정의 화월루에서 환영 연회를 열었다. 달마선사가 환영 석상에 나와, 부처님 사리 한 과를 모셔 조선불교 대표자에게 전하였다. 이에 조선 전국에서 6000여 승려 및 모든 시주자들이 돈을 내어 서울 수송동에 각황사를 고쳐지었다."

그의 방문 이후 1927년에 빠알리어와 초기불교를 공부하기 위하여 스리랑카로 유학을 가시게 되는 성일 스님과 영재 스님 등 두 분이 최초로 스리랑카를 방문한 한국인이 됩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한국 스님과 학자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빠알리어와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스리랑카 스님들도 동국대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대학과 강원, 사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스리랑카 스님들 30명을 비롯한 이주민 2만 5천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스리랑카 포교당은 5곳 정도입니다. 이 중 한국에서 포교를 하고 있으면서, 최초의 스리랑카 식 사찰로 설립된 곳이 마하위하라입니다. 이 수많은 세월 동안의 교류가 역사가 되어 하나로 묶이는 시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한국 최초의 스리랑카불교사원 '마하위하라'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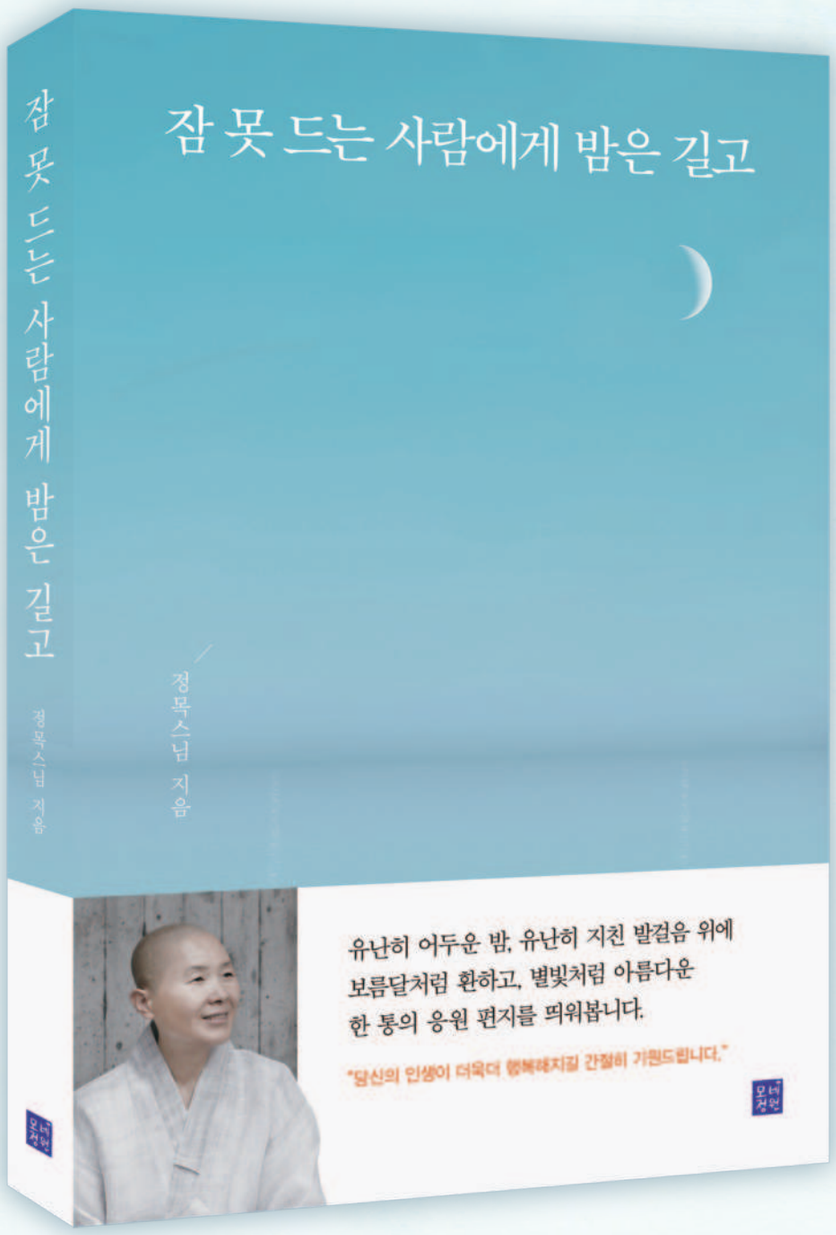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 ⇨ **12,600원** (배송비 별도)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모네정원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